







# 시론

## 묵은 한해를 보내며



송상현 목사 (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

이제 열흘만 지나면 대망의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마음이 기대감보다는 후회함으로 가득한 것은 왜일까요? 신년에는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삶에 허락하신 주위의 모든 지체들을 행복하게 해야 하겠다고 다짐을 해보건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쉬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것은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새 출발을 준비하려다가 문득 옛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매일 어머니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그의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그러다 그의 어머니가 병이 걸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 자신을 후회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는 마지막 유언으로 냇가에 자신의 시체를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틀림없이 이번에도 반대로 자신을 산에다 묻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청개구리는 이번에는 어머니의 유언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어머니의 무덤이 떠내려 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냇가로 나가 슬피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한번쯤 들어왔던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도 많은 것들을 다짐하고 후회하면서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똑같은 것들을 후회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는 지난 한해를 반성하며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금 우리는 그때와 똑같은 후회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내년에도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항상 같은 후회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한 해가 지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올해도 별로 한 것이 없네요." 조금 더 성실하게 충성되게 주의 일을 감당했어야 했었는데... 그렇게 할걸, 저렇게 할걸, 결결하며 한해를 마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도 묵은 한해는 보내야 합니다. 붙잡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에서 스스로 미끄러져 나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2012년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또 한 해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거룩한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 새로운 꿈을 꾸며, 새로운 일을 계획하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 감사(Thank)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순간마다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였던 하나님을 기억해야(Remember)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무한한 기회로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Praise)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함께 거두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Hope). 하나님은 분명 2013년에 더욱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어야(Trust) 하겠습니다. 대망의 새해를 맞을 큰 소망으로 아쉬움과 후회함을 묵은해와 함께 떠나보내십시오(Release).

# 또 총기난사... 끊이지 않는 폭력의 악순환!

## 미 언론, 코네티컷 주 초등학교 사건 동기 추적...총기규제 강화 제안

지난 14일 오전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한 초등학교에서 또다시 총기난사 참극이 벌어지면서 미국에서 총기 규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총기 난사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그때마다 총기보유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특히 유치원 또래의 어린이들이 많이 희생됐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분이 과거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사건과 관련해 애도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런 총기 난사사건을 막기 위해 "의미 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린이들을 언급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백악관 출입기자들은 "대통령이 이처럼 감정적으로 격한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다"며 백악관의 침통한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분위기로 미뤄 백악관이나 민주당에서 총기 규제와 관련해 강력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보인다고 미 언론은 전망한다.

지난 14일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난사사건이 미국 학교에서 벌어진 사상 두 번째 학교 참사가 될 전망이다. 당일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어린이 18명을 포함해 최소한 27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하게 부상을 입은 사람들도 몇 명 있어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최종 집계에서 사망자 수가 27명으

로 희생당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운동이 일고 있다.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는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이 사건 당일 이후 10여건이 제출됐고, 이 가운데 한 건은 이틀만인 16일 오후까지 12만 명이상이 서명했을 정도이다.

그간 총기사건 희생자들의 유족



발생했던 콜로라도(1천463명)와 버지니아(1천412명), 위스콘신 주(1천428명)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8%가 총기규제에 찬성했다. 하지만 더 강력한 법률을 만들

법인인 애덤 란자(20)는 14일 오전 9시40분께 모친이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는 코네티컷 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를 찾아가 어머니와 이 학교 유치원생들에게 마구잡이로 총격을 가했다.

## 범인, 아스퍼거 증후군 인격장애 있고 폭력 컴퓨터 게임 즐겨 오바마 "의미있는 행동" 약속...총기법 개정해도 "소용없다" 관측도

로 확인되고 미국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사건 가운데 희생자 수가 두 번째로 기록하게 된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 2007년 4월 16일 버지니아 주 블랙스버그의 버지니아텍에서 한인 학생 조승희가 32명을 사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범인이 성인이라는 것만 확인된 상태로, 범행 동기나 이 학교와의 관계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세 번째로 희생자가 많았던 사건은 지난 1999년 4월 콜로라도 주 콜럼비아 고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학생 한 명이 총알 900발을 난사해 학생과 교사 등 15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 미국 사회에서는 총기소유 허용에 대한 논란이 심하게 일었으나 총기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성인이 아닌 유치원 또래의 아이들이 불특정다수로 무차별

역시 총기 규제를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총기 규제가 이번엔 마련되지 않으면 이 같은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사건 발생 초기에 들끓던 규제 여론은 시간이 지나면 차츰 수그러든다는 점에서 총기규제가 실현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힘들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총기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범죄자나 불안정한 사람들의 총기보유를 막는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정당방위를 위해 총기를 휴대하는 권한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면적인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도 총기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법 제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지난 7월 콜로라도 주 극장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진 뒤 뉴욕타임스(NYT)와 쿠파워크 대학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총기난사 사건이

라도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콜로라도 주 응답자의 3분의2, 버지니아 주의 60%, 위스콘신 주의 57%가 규제 법률을 강화하더라도 불행한 사건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코네티컷 참사 동기에 대한 추적이 난무하고 있다. 원인이나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총기 규제와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랜자는 학창 시절부터 폭력적인 외톨이 학생으로 여러 급우들로부터 기억되고 있다. 매우 내성적인 학생으로서 학교 복도에서 서로 마주쳐도 몸을 피하고 옷깃을 움츠려 피하곤 했던 학생이었다고 한다.

랜자를 지도했던 한 교사는 랜자는 장애가 분명히 있었다며 신체적 고통을 잘 못 느꼈으며 화상을 입어도 별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3면으로 계속)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편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 병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진다면 가능
3.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3.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 취득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
3. 수시 입학이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 날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가' 자문하라!

## 리더십저널, 고든 맥도널드 목사가 소개하는 '영적 성장 토대' 보도

인생이라는 장거리 경주에서 다른 이들보다 돋보이는 이들, 그들에게는 영적 근성이 있다. 그들은 결승선을 향해 달리며,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줄 알며 과거의 짐을 벗어 버리고 믿음의 지구력으로 행복한 소수와 함께 달리는 이들이다. 인생의 경주장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리들을 계획해 보자. 영적 끈기와 믿음의 근성만이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지고 인생 대 경주를 완주하는 법이다.

믿음의 근성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장애요소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종종 우리는 화십이 우리 삶의 큰 그림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에 있다.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인 줄 알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큰 그림을 발견하고, 막연히 히브리 노예들에게 진절했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과 같다.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큰 그림은 인생길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각

러 그 때문에 전혀 새로운 소명을 찾거나 인생 전반부에 대한 세세한 평가를 통해 인생 후반부의 신나는 모험을 시작하기도 한다. 50대는 빠른 시간을 절감하며 남은 시간을 헤아리게 된다. 건강과 재재당 가장 문제는 경고 없이 찾아온다. 젊은 세대의 압박도 무섭다. 60대는 죽음이 떠오르는 시이다. 7-80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루 일과가 거의 정해져 있는 공동체에서 살 것이다. 하지만 그냥 앉아 놓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몸은 늙었지만 여전히 세상에 기여하고 싶어 한다. 영적 근성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즉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만드는 깊은 흐름이다. 이것을 감시하면서 필요하다면 방향을 바꾸거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다. 먼저 자기 검토를 통해 회개할 때 인격이 성숙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인격이 개발된

셋째,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수없이 많지만 최대한의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그것이 은사이다. 은사가 가진 구체적인 기능과 특성을 파악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거

## 영적근성으로 믿음의 큰 그림 그리고 소명대로 행동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은사 찾고 나눔의 삶 살아야

연령별 특징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20대는 정체성 정립에 몰두한다. 주로 인간관계나 인생의 목적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며, 삶의 조각들에 질서를 부여할 원리를 찾게 된다. 30대는 책임이 늘면서 우선순위를 고민한다. 직업과 관련해 승패가 갈리는 현실을 맞이해 인간관계에서는 고독을, 신앙생활에서는 젊음의 이상 대신 가차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된다. 40대는 위험한 미지의 바다와 같다. 무방비상태로 많은 일들을 겪어야 하는데, 뜻밖의 불확실성에 마주치며 의아해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삶을 펼쳐 놓고 이런 질문들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답을 찾지 못하면 영혼이 피곤해지고, 활력이 줄어들 것이다. 첫째,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가'를 묻는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러 "내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셨다. 무엇을 배우는가?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 조금씩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할 것이다. 인격은 기본 값으로의 '나'이다.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문득 튀어나오는 내 모습이 다. 또 사람들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다.

다. 그것은 현실적인 특성을 가져다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법이다. 둘째,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진 사람들은 소명에 이끌려 살아간다.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부르심에는 공통점이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중 한 분이 부르셨고, 예측할 수 없으며, 불가능해 보이고, 제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부르심이 찾아오는 데는 몇 가지 방식이 있다. 하늘이 말하며(!),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채고, 자신의 은사가 입증하며, 결과가 보장한다.

나,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거나, 효과적인 결과를 낳는다. 왜 그런 능력이 발휘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은사의 영역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신비한 열정이 솟구친다. 넷째,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진 사람들은 나누는 삶을 산다. '나눔' 하면 보통 돈을 떠올리는데 나눔은 돈보다 훨씬 큰 주제다. 나눔이란 오네 시보로가 바울을 유쾌케 했던 것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나누고, 바나바처럼 자신의 땀땀을 나누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적든 많은 나누는 것이다.

## 2012 종교 최대뉴스는 영화 '순진한 무슬림'

(1면에서 계속) 이슬람에서는 구원을 얻게 하는 다섯 기둥(Five Pillars)이 있다. 그런데 알라위파는 여기에다 두 가지를 더 보태었다. 하나는 성전(Jihad)이며, 다른 하나는 왈리야(Waliya, Devotion to Ali and Struggle against his enemies)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왈리야를 특별히 강조하는데, 알리를 온전히 따라야만 다섯 기둥을 실행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다고 믿는다. 알리의 추종자들답게 알리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 결과, 선지자 알리처럼 대중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감수하며, 모스크와 같은 공공장소보다 집에서 은밀히 알라에게 예배하는 것을 더 순수한 예배로 본다. 알라위파는 시리아 총인구의 약 11%(약 200만 명)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소수 분파인 알라위파가 시리아 인구 75%를 차지하는 수니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 4. 러시아정교회와 정치적 여성 음악밴드(Pussy Riot) 갈등 3선에 성공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발언, 즉 교회와 정부의 분리는 '원시적인 개념'을 추종하는 여성 밴드가 러시아정교회 교권에 도전해 불경죄로 2년간 투옥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 5. 미국 소녀들의 반란 바티칸 교황청의 위계질서에 세계 최대 수녀 조직(the Leadership Conference of Women Religious)이 여성으로 보호받고 여성답게 대접받아야 한다고 정면으로 도전했다.
- 6. 영국성공회 내 여성주교 안수문제 영국성공회 수장인 로완 윌리엄스 주교의 은퇴 압박에 따른 여성 성직자의 주교 안수/임명 부결. 그 이유로 바로 여성과 동성애자에게 안수했던 미국 성공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영국성공회 내부 결정이다.

- 7. 초강경 정통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장악
  - 8. 미얀마 민주화 이끈 승려들과 이슬람 유입자들의 갈등
  - 9. 성탄절 날짜에 대한 교황의 해석
  - 10. 펠 로버슨 목사의 대선예측 빚나감다
- 한편 지구촌의 2012년은 60개가 넘는 나라에서 총·대선이 치러진 가히 선거의 해였다. 지난 1월 대만 총통을 뽑는 것으로 시작된 세계 주요 국가의 선거는 16일 일본 총선에 이어 오는 19일 한국 대선으로 마무리된다. 동일한 맥락에서, 미 언론은 지금까지 미국 지배 계층이었던 '백인 앵글로 색슨 개신교인(WASP)'의 퇴조 현상을 최대 이슈로 손꼽고 있다. 이외에도 2012년 대선 이후 더욱 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남미계 커뮤니티의 부상과 함께 런던 올림픽 등이 선정됐다.



## 또 총기난사...끊이지 않는 폭력의 악순환

(2면에서 계속) 랜자가 않은 병은 아스퍼거 증후군(Asperger Syndrom)과 인격장애(Personality disorder)로 학교 교사들이 이를 치료해야 한다고 권고하

기도 했으나,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 이슈에 주력했던 모친 등 가족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나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랜자는 2009년 이후 학교를 그만두고 홈스쿨링을 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전쟁이나 살인 게임 등 '컴퓨터 게임'으로 변해 이 같은 성향이 범행의 발단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관계 당국이 그의 집을 조사한 결과 본체가 파손된 컴퓨터가 발견돼 범행 동기를 밝혀줄 유력한

증거가 확보됐다. 회계사로서 대기업(G. E Capital) 부사장까지 지낸 부친 피터는 지난 2009년 랜자의 모친과 이혼했으며 지금은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 피터는 공식 발표한 성명을 통해 희생당한 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우리도 그들도 금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사건 동기를 알 수 있는 확

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범인 랜자가 모친 등 가족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어린 아이들에게 표출한 것으로만 추정할 뿐이다. 모친을 증오하게 된 랜자가 모친을 죽이고, 더 나아가 모친이 평소 사람을 표출했던 대상인 어린이들까지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극악무도한 참사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

런 비극적인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어린이들은 물론 희생당한 사람들의 미래가 없어진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총기 난사사건을 막기 위해 "의미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 본교 소개 및 특전

- 1. 75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선교학 박사과정(D.Miss.)
- 48 Hour Program
- 60 Hour Program

### On Campus Courses

### 2013봄학기 본교강의안내

- Feb 11-15(2월 11 -15일)**  
DI 851 Biblical Teamwork in Missions(선교에서의 성경적 팀사역)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Roger Peugh
- Feb 18-22 (2월 18-22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온라인 강의(8주간)

- Doctoral Courses (박사과정)
- A Session(Jan 7-Mar 1: 1월 7일-3월 1일)**  
DI 801 Intentional Multicultural Ministry(고안된 다문화 사역)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 B Session(Mar 11-May 3: 3월 11일-5월 3일)**  
DI852 World Religion(세계종교)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 Off-Campus Courses

- Bangkok, Thailand**
  - Jan 7-11 (1월 7- 11일)
  - DI 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 Jan 14-18 (1월 14- 18일)
  - DI822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구약에서의 문화)
- Los Angeles, CA**
  - March 11-15(3월 11 - 15일)
  - DI 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 Manila, Philippine**
  - April 15-19(4월 15 - 19일)
  - PM 804 Philosophy of Ministry(목회철학)
- Korea**
  - April 22-26(4월 22 - 26일)
  - DI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 옛말에 “밤새 울고 나서 누가 죽었느냐고 묻는다”는 말이 있다. 초상집 분위기에 젖어 덩달아 서럽게 밤이 새도록 울기는 울었는데 정작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울었다는 말이다. 이 말은 울고 웃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왜 울고 왜 웃는지 이유도 모른 채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덩달아 흔들리는 사람을 지적하기도 한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지없이 캐롤을 부르고 듣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한 해의 마무리를 짓게 된다. 그런데 성탄이 무엇인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캐롤을 부르느니 생각해보았는가? 아니 성탄절이 여러분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았는가? 크리스마스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온 세상이 기뻐하는 절기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때문이다. 주

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말로 또 음악으로 선물로 나누는 것이다. 물론 그럴 때 주고받는 기쁨도 있지만 성도에게는 이 말이 He came to this world로 끝나지 않고 He came to this world even for me 나를 위해 오셨다! 여기에 나의 기쁨이 있는 것이다. 성경은 모든 육체가 주의 구원을 보리라! 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육체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다. 그럴 때 크리스마스는 나에게 전혀 새로운 감격으로 와 닿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 그것은 분명한 역사이고 또 신학적이고 하나의 교리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오신 때를 기준으로 역사를 돌로 나누어 BC와 AD로 구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 그것이 신앙이다. 지난 2000년 역사가 지나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오셨다는 그 사실을 전파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가 이 땅에 오

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누구나 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적 인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나의 고백적인 신앙이 되어야 세상의 크리스마스가 아닌 나의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다. 신앙은 어느 누구보다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어야 한다. 내 속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에 대한 고백이며 내 안의 경험하는 내면적인 경험이다. 신앙은 저 감싸라는 분에게도, 박씨라는 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만일 내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내 가슴속에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으면 이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다. 신학과 교리에서 한 걸음 더 신앙으로 들어가야 한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 지식에서 고백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 세상에 어떤 진리라도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내 고백적인 진리로 받아 고백되지 않으면 내

게 아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준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계하시리라” 우선 내 자신이 아브라함처럼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진정한 회개 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기뻐만 하고 있는 것은 너희 자신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망각하고 사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런 나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오신 것이다. 나를 잃어버린 채 세상사는 일에만 빠져 사는 그런 구제불능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마가복음 3:2에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쳤다. 천국을 맞이할 가장 중요한 준비가 회개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성탄절 준비는 캐롤이나 선물이 먼저 아니고 무엇보다 먼저 내 죄를 회개하는 일이다. 여전히 죄 속에 나를 잃어버린 채 걸치레만 하는 성탄 준비는 도리어 어리석음을 넘어 위험한 것이다. 진정한 내면의 회개가 없이는 모든 성탄준비가 아무 의미없는 걸치레일 뿐이다. 아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 전에 먼저 내 안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청결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성탄준비요 고백적 성탄이 되는 것이다. 크리스마스의 최대선물이 무엇인가? 이 땅에 와주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대의 선물은, 주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새로워진 자아와 함께, 그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 바로 그 선물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것이다. 금년에는 세상이 떠들썩한 걸치레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자아로 회복시켜 주시는 고백적인 성탄이 되기를 바란다.

## 푸/ 른/ 초/ 장

**신원규 목사**  
(삼성장로교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크리스천은 누구나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이란 크리스천의 삶이며,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의 삶 속에 담겨진 그 영광은 무엇인가? 누가는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생활을 직접 목격하진 못했으나 훗날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실제로 들었던 사건들을 본 것으로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이 사실이 크리스천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들은 복음을 직접 내 삶으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들은 복음을 단순히 지식과 소식으로 전하는 것만 아니라 그는 들었던 복음을 생동감 있게 본 것처럼 신앙생활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를 지명하여 성령의 감동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누가 복음과 동시에 사도행전을 목격한 사건으로 기록하게 합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는데 누가의 삶 속에는 어떤 신앙의 간증이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누가를 불러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스런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마17장, 막9장, 눅9장에는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접근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17장에서 사건배열을 보면 예수님 순수한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셔서 누가복음을 말씀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내용 배열을 보면 열두 제자 파송으로 시작되고 둘째, 셋째 대왕의 불안한 마음을 기록하고, 오천 명을 먹이는 사건, 베드로

의 신앙고백과 이어서 영광스런 사건을 기록 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수난을 첫 번째로 예언한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배열이 참 우연이 아니며 여기의 누가의 가슴속에 담긴 간증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화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기도하

는 중에” 주님이 영광스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사실을 누가는 이 사건을 포착하여 생생하게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가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써 왜 제자들을 데리고 왜 기도하러 가셨는지 누가는 마음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누가의 마음의 소원을 아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질문할 때 주님은 “나는 길이요, 생명이심”을 가르치십니

니다. 그러면 권세란 (엑소시)합리적인 권리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권세”는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능력과 권세를 주신 사건을 누가는 이 사실을 목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누가를 도와서 사도행전 전장을 기록하였고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는 현장으로서 로마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국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헛된 대왕도 한 몫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사건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고백 뒤 위에 오병이어 사건, 헛된 대왕이 불안해하는 사건들이 바로 베드로의 이 신앙고백 뒤 위에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가는 이 신앙고백 위에 다음으로 전개되는 사건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심”의 삶을 강조합니다. 이 신앙고백 뒤 위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구원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십자가의 성숙한 삶을 살도록 도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이루어지며 성숙한 삶에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까?

## 누가의 간증 속에 담긴 영광 누가복음 9 : 28-36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날마다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방인 출신의 의사인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누가 복음서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9장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과 권세는 필수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능력(뒤나미스)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격의 힘이며,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

주어진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열 두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가 당시 헛된 대왕이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 헛된 대왕은 내가 세례 요한을 목 베어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가 불안해합니다. 그때 모든 유대 땅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초점이 맞춰지는 사건은 곧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모든

십자가의 삶은 기도라는 레일에 주어졌습니다. 그 레일 위에 가다보니 영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누가는 잘 정리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의 간증의 핵심적인 것은 십자가의 삶에 가슴에 담고 살았더니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간증 속에 십자가의 삶에 중심이 두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영광”이 되십니다. 십자가의 삶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2013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 5 명함판 사진(2"×2")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 부 처 : 본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3년 1월 25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3년 1월 26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영 성 훈 련 : 2013년 1월 28일(월) - 30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학 감 / 교 부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 (718)463-7047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지난 주간에 우리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일이 또 지면과 방송을 채웠다. 미국 동부 커네티컷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2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총에 의하여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의 범인 Adam Lanza는 자기 집에 있는 어머니가 보유한 고성능 총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고 초등학교에 달려가서 6살-7살 사이의 어린이들과 어른들을 무차별로 학살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었다.

추모예배에 참여한 감정을 잘 들 어내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도 목이 메인 가운데 연설을 했다. 이번엔 희생당한 피해자 어린이들의 생존시의 천진난만하고 밝은 사진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목이 메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실 모든 부

해서 정신병자들의 관리의 문제와 통제에 대한 문제들,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의 영향들, 사회적으로 적응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예방적 대책들 등의 수많은 방법들이 제시한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본다. 뉴스미디어에서 언급하지 않는 다른 핵심적 문제는 교육이다.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나왔다가 지금 토크쇼를 담당하는 해커비 목사는 이번 사건은 "미국이 하나님을 학교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교육의 실패의 결과라는 말이다. 사실 미국은 케네디 이후로 학교에서 하나님과 성경말씀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미국 건국시부터 중요한 정치적인 원리로 여겨왔다. 유럽을 건너온 초기 이민자들은 중세시대의 타락한 가톨릭 종교와 정치의 밀착이 가져온 암흑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교육, 기도가 없는 교육, 성경이 없는 교육, 심계명이 없는 교육, 이제 는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 소위 세속적 실용주의의 교육이 지배한다. 그래서 미국 교육의 현장은 오직 신앙의 자유만 포기를 강요하는 현

의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대학살 했다. 해롯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 형제도, 자녀들도 죽였다. 해롯의 베들레헴 대학살은 특별히 갓난아이들을 향한 테러이다. 자신을 보호할 힘도 없는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최악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어떤 말로도 정당화 할 수 없는 죄악이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전부가 아니다. 기독교인들이 전세계에 걸쳐서 일년내내 핍박을 받는다. 작년 국제 기독교 인권 감시단체인 ICC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이 무슬림들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나이지리아 플라토 주 조스 시 인근에서 무슬림 괴한들의 기독교인 마을 공격으로 5백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2주일이 채 남지도 전에 또다시 기독교인들을 공격했다. 이번 공격으로 사망한 기독교인 수는 13명에 이르며 임신부와 어린이들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기독교인 마을이 무장한 괴한들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총성으로 주민들을 위협한 뒤 집 밖으로 나오는 이들을 여성, 아이 가릴 것 없이 칼로 마구 베어 살해하는 잔인함을 보였다고 한다. 피해자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성탄의 계절에 오신 예수그리스도가 성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세상은 성탄이 이전 무신론 홀리데이(Holiday) 문화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의 계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요?

-나성에서 유 집사

**A:** 집사님이 염려하는 대로 이 미국은 점점 성탄문화가 무신론 문화로 "예수는 없다"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성탄에는 미국사람들이 잘 부르는 캐롤 I'm dreaming of white Christmas가 아닌 I'm dreaming of right Christmas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성탄절에는 바른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히브리 기자들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히3:1-2, 12:1-2). 그리스도 예수를 환영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 분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1.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는 AD와 BC로 나뉘었습니다. AD는 '아도 도미니'라는 라틴어로서 in the year of our Lord로서 "우리 주님의 시대에"라는 뜻입니다. 역사는 어떤 위대한 왕이나 정치가 도덕가 영웅의 행적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했던 인간도 잠깐 있다가 사라졌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

#### 성탄은 역사의 중심, 성경의 중심, 선교의 핵심 예수님만 찬양해야

니다. 역사를 영어로 History라 하는데 그 뜻은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 인데 예수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 인류역사와 개인의 운명을 푸는 비밀한 열쇠입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사건을 풀지 않으면 역사는 전혀 풀리지 않습니다. "어네스트 레난"의 말대로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없이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요 우주의 비밀입니다. 그 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지난 21세기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이십니다. 성경은 종교적 문헌을 아무렇게나 수집해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책이라고 예수님이 요5: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곧 내게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읽다보면 성경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부 제롬은 "성경에 대한 무지는 곧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구구내시도 이사야서를 읽다가 빌립을 통해 성경의 중심인 예수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

다. 3. 예수님은 선교의 핵심이십니다. 우리들은 현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대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2가지가 있는데 1)주님의 재림이며 2)선교입니다. 재림과 선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초림에는 말기유에 태어나시면서 죄인을 구하려 이 세상에 초라하게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만왕의 왕 심판자로 천군천사들과 함께 죄인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탄절에는 이 예수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현재 기다리지만 아직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초림을 듣지 못하고 또 한 들어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탄과 선교는 같이 가야 합니다.

## 성탄 계절의 뉴타운 어린이 대학살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모들이, 아니 모든 세대들이 일어나서 통곡하고 회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상징적으로 세계의 어린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직 자세한 내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정죄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더라도 그 행동을 결단코 정당화할 수는 없다. 어린이들이 방학과 크리스마스로 떠돌고 즐거워하여야 할 기쁨과 축복의 계절을 슬픔과 절망과 통곡의 계절로 바꾼 악마적인 사건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가? 오바마 대통령은 추모예배에 참석하여 감동적인 연설을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폴립바인 총기난사에도, 한국인이 범인이었던 조지아태 총기난사에도, 대형 총기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정치인들은 변화를 약속했다. 그런데 문제는 더욱 더 악화되어서 이제는 스스로 아무런 방어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학살당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문제해결

방어가 아니라 방어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교사들의 생명을 빼앗고 범인 자신도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는 결국 자기 생명을 빼앗아 갔다.

미국인들은 총기소유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서부개척 시절에 정부가 개인들을 다 보호해주지 못했다. 자기방어가 미국의 문화이다. 자기를 스스로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총기소유를 허락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한 큰 문제 제시는 전쟁터에서 있어야 할 무기가 미국 내에 사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연약한 아이들에게 향했

다고 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총기규제에 대한 정당성을 더하는 비극의 사건이었다. 물론 각 사회마다 범죄자들, 문제아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범인이 설사 정신병자라고 하더라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무기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대량 살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더 강력한 살상무기를 접할 수 있었다면 더 큰 대학살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통

장이 되었다. 예수님과 성경은 거부되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허용되는 차별의 장소가 되었다. 가치관이 제외된 교육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범죄를 행한 사람을 향해 병들었다고 말한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한 흑인 형제가 푸념 섞인 뼈 있는 말을 했다. "흑인이 사람을 죽이면 범죄자, 중동인이 사람을 죽이면 테러분자, 백인이 사람을 죽이면 정신병자라 한다." 물론 정신과 의사는 범인에게 정신적인 질환의 병명을 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의도적인 살인은 병이 아니고 사악함이다.

창세기의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살인자 가인을 상하게 한 사람은 7배의 벌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확대 적용하면서 자신을 상하게 하면 77배라고 주장한다. 자기가 당하는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인다고 했다. 자기의 상처를 몇 배, 몇십배를 증폭해서 다른 사람에게 갖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약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분노를 폭발하는 것은 병이 아니라 사악함이다.

예수님 재림의 마지막 때는 주님의 초림 때와 같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해롯대왕은 자신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베들레헴 지경

인 기독교인 주민들은 괴한들이 사람들을 살해하고 마을을 불태우면서 "알라는 위대하다"는 뜻의 "알라 아크바"를 외쳤다고 증언했다. 세계적인 기독교인의 당하는 핍박에 비하면 빈산의 일각이다.

성탄의 계절에도 세계 곳곳에는 폭력과 학살이 계속된다. 연이어 일어나는 이라크의 폭파사건들, 아프가니스탄의 폭발사건, 시리아의 어린이 살해사건 등 지구촌 곳곳에는 총성이 그치지 않는다. 하지만 성탄은 평화와 기쁨의 계절이다. 사단은 성탄의 축복을 오염시키려고 한다. 성탄절의 평화와 기쁨을 깨려는 사단의 공격과 역사는 2천년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첫 번째 성탄절에 해롯의 폭력이 피로 물들었다. 이번 성탄절에 고통하는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진정한 평화는 재림하시는 주님이 가지고 오신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보장하신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번에 어려움을 당한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한다.

"지금껏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 청빙 (Sunday School)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 EM 사역자

팜비치 한인장로교회(담임: 한석원 목사)에서 주일학교를 담당할 디렉터를 청빙합니다.

주일학교 사역 대상: 유아부터 고등부까지

- 1. 자 격: 신학 대학교 졸업 또는 재학자, 영어 필수(1.5세/ 2세 선호)
- 2. 제출 서류: 이력서, 간증문, 사역 계획서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메일도 가능)
- 3. 접수 마감: 2012년 12월31일
- 4. 연 락 처:
  - 담임 목사 한석원 목사: 404-435-3252
  - sukwonhan@hotmail.com
  - 교육 사역원장 채한림 장로: 561-809-0937
  - hollychae@gmail.com)

• 인터뷰를 통해 하프 타임, 풀타임 조정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팜비치 한인 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Palm Beach  
301 S. Olive Ave. West Palm Beach, FL 33401  
(www.pbkc.org / 561-651-1198)

## 부목사 청빙

해외한인장로회(KPCA) 버지니아 장로교회에서 동역하실 전임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 주요사역 : 영어예배, 청년부, 사무행정
- 지원자격 :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사로 영어와 한국어 사역이 가능한 분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개인소개서 (본인 및 가족사진 첨부) 최근 설교동영상 혹은 CD 2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개별 인터뷰 (서류심사 통과자만 개별 통지 합니다.)
- 제출기한 : 2013년 1월 31일
- 제출처 : 버지니아 장로교회 청빙위원회 (담임 : 서기 백원길 장로, 703-585-6355) Eld. Won Kil Paik 6355 Edsall Rd. Alexandria, VA 22312
- 제출방법 : 우편이나 이메일 wonpaik@hotmail.com
- 교회주소 : 6021 Franconia Rd. Alexandria, VA 22310
- 교회전화 : 703-922-6064

**버지니아장로교회**  
담임목사 민철기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증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토알라(Toala)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로 현재도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많은 무슬림과 함께 세계에서 인종적으로 가장 다양한 인구를 가진 나라 중 하나이다. 토알라(Toala)는 이곳에 살고 있는

300종족들 중 하나다. 인도네시아 섬들은 아시아와 유럽, 호주 사이에서 실제적인 해로를 가지고 있으며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주요한 연결을 가지고 있다.

토알라는 주된 인도네시아 섬 중의 하나인 술라웨시(Sulawesi)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술라웨시는 일반적으로 거대하며 원뿔산으로 두드러진 큰 계모양의 섬이다. 토알라 족은 포소(Poso), 라아(Laa), 그리고 칼레나

(Kalaena) 강의 계곡 근처에 살고 있다. 큰 여러 부족들이 토알라 사이에 살고 있으며, 모두 종교와 문화가 비슷하다. 그들은 또한 모두 하나의 공통된 지방언어를 구사한다. 대부분의 다른 부족들은 기독교인이 됐지만 토알라는 여전히 견고한 무슬림으로 남아있다.

삶의 모습

20세기에 앞서 고지대 토알라 족은 커피와 노에 때문에 종종 침입을 당했고 이를 보복하기 위해 사람을 사냥하며 침입하는 것은 또한 일반적이었다. 대부분의 토알라는 그들 자신의 음식인 쌀을 위해 계단식의 농작을 한다. 물소를 이용하여 금속 생기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토알라 농부들은 옥수수 와 향신료, 콩, 고구마, 감자를 기

른다. 현금화 할 수 있는 작물은 커피와 정향이다. 또 뱀, 뱀장어, 그리고 경작되지 않은 논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는다. 가족은 닭, 돼지, 그리고 종교적 제사를 위한 물소들이 있다.

이들은 작은 촌락과 평원을 따라 여기저기 있거나 언덕 꼭대기에 있기도 하다. 4명에서 6명의 가족들이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간다. 촌락들은 혈연과 결혼에 연결된 모든 식구들과 함께 지역적인 "친척"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개인적 필요보다는 가족의 중요성, 원로들과 정직함을 존경하는 것이 강조된다.

과거 상류층의 결혼은 일부다처제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대부분 일부일처제를 따른다. 결혼한 후에 부모나 혹은 배우자의 촌락에서 살도록 선택할 수 있다. 어떤 결혼은

부모가 정하지만 오늘날 많은 젊은 이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직접 선택한다.

입양은 토알라 사이에서 일반적 으로 행해지고 있다. 아이들은 부모와 친척에 의해 양육된다. 이는 가족결합력이 확장되고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친척과 친구들을 허용 함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경우 아이들은 종종 그들의 입양과 원래의 부모의 가족 사이에서 종종 옮겨 다니게 된다.

신앙

토알라는 99%가 수니 무슬림들이다. 그러나 정령숭배의 다양한 형태가 그들의 문화에 영향을 끼치며 존재하고 있다. 토알라에서 장례식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들은 이 의식이 이 세상에서의 삶

을 떠나는 것과 다음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믿는다. 장례식은 그 사람의 부와 지위에 따라서 길이와 형태가 달라진다.

필요로 하는 것들

37,000명 토알라에서 오직 318명만이 믿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정령숭배와 혼합된 그들의 견고한 이슬람의 신앙의 복합성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토알라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선교단체가 있으며, 그들은 매우 적은 기독교적 자료를 가지고 있다. 성경은 그들의 언어인 토알라-팔리리(Toala-palili)로 아직 편찬되지 않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코네티컷 총기난사범 모친, 종말론자

지난 14일 코네티컷 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애덤 랜자(20)의 모친 낸시 랜자(52)가 종말론자였으며 이에 따라 식량을 비축해 두고 총기 구매에 집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애덤의 이모인 마사 랜자(57)는 낸시가 생전에 문명사회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믿었으며 종말에 대비해 사격과 같은 생존 생존 법칙을 습득했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이 16일 보도했다. 마사는 "우리는 종말에 대비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면서 "그는 경제 붕괴에 대비하고 있었으며 식량을 비축했다"고 회고했다.

조경업체 '홈 파인 가든스'의 덴 홈스 대표는 "낸시가 아이들과 함께 자주 사격연습을 하러 가곤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결국 모친의 종말론적 관점이 아들 애덤에게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데일리메일은 지적했다.

관련 소식들은 낸시가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애덤이 겨누는 총구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애덤은 이후 낸시 명의의 총기 여러 개와 차 열쇠를 들고 샌디 훅 초등학교로 가서 총기 난사 참극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27명 사망).

한편 애덤의 범행 동기를 둘러싼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전쟁이나 살인 게임 등 '컴퓨터 게임광'이었던 애덤이 성향도 범행의 발단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사건 담당 조사관들은 그의 집을 수색한 결과 본체가 파손된 컴퓨터를 발견했으며 애덤이 부순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애덤이 범행 당일 컴퓨터 게임의 가상현실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중국 초등학교 칼부림 범인 '종말론'에 영향

중국 허난성 광산현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대상 무

차별 칼부림 사건의 용의자는 '2012년 세계 종말론'의 영향을 받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중국 경찰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사건 발생 당일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 용의자 민(閔)모씨를 검거했으며, 조사 결과 종말론에 심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중국 동방망(東方網)이 17일 전했다. 민씨는 지난 14일 광산현 초등학교에 칼을 든 채 들어가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칼부림을 했으며 이 사건으로 초등학교 22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중국 곳곳에선 종말론이 유포되면서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종말론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체포해 구류 10일형에 처하고 있다. 우한(武漢) 경찰은 지난 16일 거리에서 세계종말론 전단지들을 대거 유포한 부녀자 5명을 체포했으며 지난 8일에는 푸젠성 진장에서 부녀자 등 4명이 전단지를 뿌리며 "세계 종말이 온다"고 외치기도 했다.

예수가 동성애자? 크리스마스 광고판 논란

뉴질랜드에 있는 한 영국 성공회 성당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성당 앞에 예수가 동성애자임을 시사하는 대형 광고판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오클랜드 도심에 있는 세인트 매튜 성당은 매년 크리스마스 때 도발적인 내용을 담은 광고판을 세우는 것으로 유명한데, 올해에는 예수가 동성애자임을 시사하는 내용을 담아 보수파 기독교도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광고판에는 아기 예수가 무지개 후광에 휩싸인 채 구구에 누워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크리스마스는 예수가 커밍아웃해야 할 때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커밍아웃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성당의 클린 카디 신부와 클레이 넬슨 신부는 이

광고판은 동성애에 대한 논쟁과 토론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라고 17일 뉴질랜드 언론에 설명했다. 넬슨 신부는 "일부 학자들이 그가 동성애자였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은 모두가 억측에 불과하다. 동성애자면 어떻게 동성애자가 아니면 어떤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카디 신부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의 성적 성향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번에 세운 광고판은 예수의 성적 성향에 따라 그에 대한 믿음이 달라질 수 있는지 물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가 동성애자였다면 믿기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그를 존경하고 숭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부자가 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은 수없이 많지만 성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은 기록에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그는 언제나 사회의 소외 계층에 관심을 두고 도우려고 했던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세인트 매튜 성당이 세우는 광고판은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2천100여명 명이 세인트 매튜 성당의 크리스마스 광고판을 보았고, 세인트 매튜 성당 웹사이트를 찾는 방문자 수도 한 주에 3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

지난해 광고판에는 동성애 마리아가 양성 반응이 나온 임신 검사 용지를 손에 든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가톨릭 시위자들의 공격으로 광고판이 크게 훼손되기도 했다. 카디 신부는 그런 행동도 전통의 한 부분으로 보인다고 "인터넷 시대를 맞아 그런 이미지는 영원히 전파될 것이지만 그들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백인 2043년에 소수 인종 된다

앞으로 약 30년 뒤엔 미국에서 백인도 소수 인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12일 백인 인구 비중이 2043년이면 5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2060년에 이르러 백인 인구는 1억7천900만 명으로 43%, 비(非) 백인은 2억4천130만명으로 57%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백인 인구는 현재 1억9천780만명(64%)에서 2024년에는 2억명으로 늘어나며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드는 반면 비 백인 인구는 두 배로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백인은 1960년에는 85%를 차지했는데 1965년 이민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2000년에는 69%로 떨어졌다. 특히나 1990년대 이후 대거 유입된 히스패닉 이민자 등 소수 집단의 높은 출산율 덕분에 미국의 인구 구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60년에는 비 백인 중 히스패닉이 1억2천880만 명으로 3명당 1명꼴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히스패닉 인구 비중은 17%이다. 흑인 인구는 14.7%로 조금 늘어나고 아시아계는 현재 5%에서 8%로 증가한다. 인구조사국 관계자는 "백인 인구가 가장 큰 단일 집단이 되겠지만 어느 집단도 다수인종이 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나이가 어린 집단일수록 인구 변화 속도가 빨라서 1세 미만 영아는 이미 사상 처음으로 백인이 소수가 됐다. 2018년이면 미국 어린이의 절반 이상이 비 백인이 되고 2028년이면 18-29세에서도 백인 인구 비중이 절반 아래로 내려간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비 백인 유권자 78%의 지지를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공화당도 대선 패배 뒤 소수 인종의 마음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수자 개념 변화에 따라 인종차별 폐지를 위한 시민운동도 방향을 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법원에서 백인 피고들은 소수자 보호조치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대학 소수인종 우대정책 등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인종간 결혼이 늘어나는데 따라 인종 구분 자체가 흐릿해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2060년에는 혼혈 인구가 750만명에서 2천670만명으로 세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전체 인구는 현재 3억1천500만명으로 2051년에는 4억명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4억2천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946-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7천800만명이 늙어가면서 전반적으로 고령화되고 있다. 65세 이상은 현재 4천310만명으로 7명 중 1명인데 2060년에는 9천200만명으로 5명 중 1명으로 확대된다. 85세 이상 초노년층은 현재 590만명에서 1천820만명으로 3배로 늘어나며 4%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JoyLA.com

Sale

추제별성서대전 80%OFF

정가 \$750.00+세일가격 \$150.00+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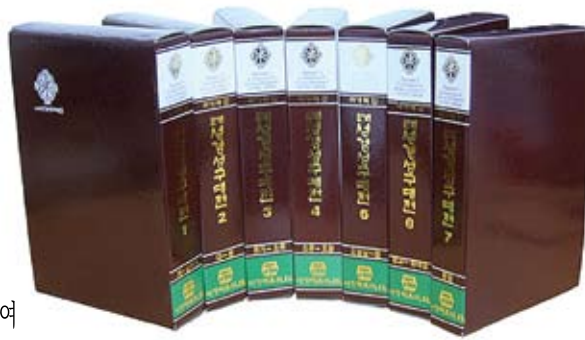


32 Set 한정특가판매( 1set 12권)

이끼완벽 성경 성구대전 (전7권)

save 69% 정가 \$758.00

세일 가격 \$235.00 +Tax



- 1권:가~남사 2권:다~못 3권:못가~소위 4권:소유~오늘 5권:오늘날~종 6권:종교~히데겔 7권:판람
- 1. 개역한글성경의 성구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록
- 2. 해당성구를 완전히 인용
- 3. 한글성경성구들이 이해하는 용어와 철저히 비교하여 말씀의 근원적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

2013 미주용 다이어리 신청하세요

다이어리 커버에 교회이름 인쇄, 수첩 안에는 필요한 내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수첩커버에 100부이상은 무료로 인쇄해 드립니다(단 10월 31일까지 주문에 한함). 50부 이상 100부 미만은 인쇄비 권당 50센트씩 추가됩니다.



미주판 2013 Immanuel 다양하고 실용성 있는 내용과 세련된 디자인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쿠틀을 결합 임마누엘 미주판 2013다이어리! 1-50 권은 \$6,50 51-99 권은 \$6,00 100권 이상은 \$5,50



2013 Agape Partner Diary 미주판 고급스런 표지와 세련된 디자인, 활용하기 쉽도록 구성된 Contents! 교사용, 구역장용, 성가대용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필수 Gift 아이템입니다. 1-50권은 \$650 51-99권은 \$6,00 100권 이상은 \$5,50



2013 하이웨이 다이어리 30년 동안 목회자, 구역장, 교사들의 친구한 사역 도우미! 미주생활 안내가 기재되어 더욱 편리합니다. 1-5-권은 \$6,25 51-99 권은 \$5,75 100권 이상은 \$5,25



미주판 2013 Qumran Christian Diary(Medium Size) 다양하고 짜임새 있는 Contents로 구성된 미주판 다이어리! 목회자분과 구역장, 교사분 들을 위한 실속 있는 구성! 1-50 권은 \$5,50 51-99 권은 \$5,00 100권 이상은 \$4,50



미주판 2013 Qumran Christian Diary(Large Size) 다양하고 짜임새 있는 Contents로 구성된 미주판 다이어리! 목회자분과 구역장, 교사분 들을 위한 실속 있는 구성! 1-50 권은 \$6,50 51-99 권은 \$6,00 100권 이상은 \$5,50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2013 2013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다이어리 Experiencing GOD diary! 목회자, 제직, 교사, 성가대, 구역장의 사역필수품! 1-50 권은 \$6,95 51-99 권은 \$6,55 100권 이상은 \$6,00

JOYLA 언제나 고객감동이 있는곳 CALL : 1-800-662-7282 / Email: joylabook@hotmail.com

조이기독백화점 | 미국: 323-766-8793 3170 W. Olympic BL. #E L.A., CA 90006



특/ 별/ 기/ 고

한국교회와 WCC WEA, 로잔운동 (4)



노봉린 박사(Th.D. 하와이신학대 교수)

III. WEA(World Evangelical Alliance) 운동

WEA는 1864년 영국, 미국, 유럽의 10개국 교회 대표들이 영국에 모여 창설하였다. 현재 132개국...

매년 미국과 유럽에서 모여 그들의 보고와 계획을 논의하였다. 필자는 WEA TC의 사무실을 서울 중종로 ACTS캠퍼스에 두고 6년간(1990-96년) 신학분야에서 사역하였다.

WEA를 통하여 제3세계, 유럽, 북미, 호주/뉴질랜드의 많은 신학자들을 만나 신학정보를 수집하였다. 매년 네 번씩 서울에서 출판되는

한국교회는 한국복음주의협의회(KEF)를 제외하고는 한기총도 전혀 WEA운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조직적으로 WEA는 아시아에서는 아세아복음주의협의회(Evangelical Fellowship of Asia)가 있고 EFA는 각국의 복음주의협의회와 연결되어 있다.

필자는 ATA총무로 EFA의 신학교육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EFA 실행위원 중 한 사람으로 오래 동안 활동하였다.

1989년 가을 WEA국 제총무인 Dr. David Howard가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질 가망성을 보고 공산권에 있는 소련과 동유럽을 방문하기 위하여 WEA 대표 4명을 선별하였다.

WEA는 여러 분과위원회가 있다. 선교, 신학, 청년, 여성, 종교자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Theological News(8페이지)를 통하여 신학교육 정보를 세계 복음주의 신학자들에게 5년간 전달하였다.

WEA 신학자토론회를 세 번 가졌다. 1990년 6월 워튼 칼리지 근처에서 "Theological Issues in 1990s" 주제로 가졌다.

세 번째는 1994년 9월 한국복음주의신학협회(KETS)와 공동으로 서울양재동에 있는 햇빛선교센터에서 "Prosperity Theology and Theology of Suffering"(기복신앙과 고통의 신학)의 주제로 신학토론회를 가졌고...

IV. 로잔운동

로잔운동은 빌리 그레함 목사와 그의 BGEA(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영국 성공회 존 스토틀(John Stott) 목사와 같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대규모의 세계로잔전도대회를 여러 번 갖게 되었다.

그는 매주일 "The Hour of Decision"(1950) 라디오 복음 방송을 전파하였고 Christianity Today(1956) 잡지를 출판하여 에큐메니칼의 Christian Century잡지를 초과시켰고 Fuller Seminary(1947)를 창설하여 복음주의 목회자를 배출하였다.

등을 직접 경험했다.

로잔운동은 WEA와 WCC에 속한 복음주의교회들과 같이 손잡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루어진 전도와 선교운동이다. 로잔운동은 WEA와 달리 각 나라에 있는 복음주의협의회와 각 대륙과 전 세계적인 조직체를 갖고 있지 않다.

아시아의 로잔운동은 1978년 싱가포르에서 제1차 아시아로잔대회를 가졌는데 25개국에서 280명이 참가하였다. ALCOWE(Asia Lausanne Congress of World Evangelization)가 처음으로 구성되었으며 필자도 Bel Megalic 목사(필리핀), James Wong 목사(싱가포르), 조종남 박사(한국), David Chen 목사(대만)와 같이 실행위원으로 노력하게 되었다.

필자는 1990년 6월 워튼 칼리지 근처에서 "Theological Issues in 1990s" 주제로 가졌다. 1992년 6월 마닐라에서 WEA 총회가 개최됐을 때 WEA 신학분과위원회와 ATA가 공동으로 신학자 토론회를 가졌다.

V. 한국교회에 드리는 3가지 소원

1. 한국의 WCC에 속한 교회와 지도자들은 WCC 지도자들의 과거의 비 성서적인 신학적 문제를 변명하지 말고 솔직히 인정하기를 바란다.

2. 정통적 보수신앙을 유지하기를 원하며 WEA 복음적인 운동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교회와 지도자들은 반WCC 운동과 비판에 무게를 두지 말고 교회지도자 자신들이 먼저 교회와 교단 내 분열을 제거하며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한국교회 하나되기 운동"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국교회협의회 분열(한국에 2개, 하와이에 3개)과 교단 내 분쟁은 평신도를 실망시키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교역자들이 먼저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다.

3. 지난 60여 년간 WCC와 WEA 운동을 이끌어온 서구교회(유럽과 북미)는 물질만능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성문란주의 영향으로 해가 지는 상황에 처해있다.

같은 교회는 서구교회가 아니라 제3세계교회(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인 것이다.

아시아에서 성장하는 중국교회, 한국교회, 인도교회, 인도네시아교회, 캄보디아교회 등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아프리카(사하라사막 남부) 인구의 50%가 기독교이며 아프리카성공회는 전 아프리카에 400개 교구를 갖고 있으며 전 세계 성공회 교인 7천7백만 중 나이 지리아는 2천만 신도를 포함하여 영국, 미국, 캐나다 성공회 교인을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교인을 갖고 있다.

한국교회는 다시 한 번 예수님과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9-20).

을)를 약한 것 같이 재정과 인력이 풍부한 한국교회도 아프리카, 남미 교회지도자들과 손잡고 이 세 분야에 지도력을 발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결론

필자는 OMF 선교사로 싱가포르 대만에서 20년, 한국 신학교(ACTS와 햇빛트리니티신학)에서 10년간 교회사와 선교학을 가르쳤고 현재 하와이신학교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다.

4세기말 성 어거스틴이 북아프리카(현 Tunisia)에서 사역했을 때 전 북아프리카(에집, 리비아, 알제리아, 튀니시아, 모나코) 지역에 500개 교구(노회)와 이에 속한 수천 개 교회가 존재했지만 7세기에 이슬람교가 이 지역을 무력으로 지배하였다. 현재 애굽(10% 콥트교회)을 제외하고 전 지역의 인구 98% 이상이 이슬람으로 전환한 것이다.

6.25동란을 겪으면서 굶주리고 추위 떨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미국의 구제품으로 생명을 보전했던 한국민족, 또한 주기철, 손양원 목사 같은 수많은 순교자의 피 흘린 대가로 이루어진 한국교회의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놀라운 "한국교회성장폭발"도 이제는 자리를 감추게 되었다(Bong Rin Ro & Marlin Nelson. Eds. Korean Church Explosion. 1995, 302 p.).

한국교회는 다시 한 번 예수님과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9-20).

(끝)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차이가 명품 웨딩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미나, 각종행사. 아로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l. L.A., CA 90010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초혼, 재혼. YOUNG KIM. 213.514.2004. youngkim720@hanmail.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DiscMaster 자동형 복사 & 프린터. BURN + PRINT. 초간편 복사기. 전도용 멀티슈 판매. TOLL FREE: 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지사 워싱턴DC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대권도 겸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119. 물의 기원과 생명체

“물은 돌 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욥 38:30). 하나님께서 물을 교훈하고 있는 장면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가 이 사실을 모르길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으며, 물은 왜 이런 말씀들을 듣고 고개를 숙이고 회개하게 되었을까?

수은주가 내려가는 겨울이 오고 있다. 수은은 추워지면 부피가 작아져 즉, 밀도가 커져 수은주가 내려가게 된다. 거의 모든 물질들은 열게 될 때 밀도가 커지는데 물만은 반대다. 만약 물이 얼 때 밀도가 더 커진다면, 얼음이 호수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물고기들은 시장의 생선들처럼 얼음 위에 놓이고 말 것이다. 겨울에 얼음이 어는 호수에서도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물이 고체로 될 때 아슬아슬하게도 밀도가 살짝 작아지는 현상 덕분이다. 아니, 오히려 수면에 있는 얼음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다. 물은 이렇게 절묘하게 창조하신 창조자의 능력을 금세 알아차리고 피조물인 자신의 위치로 돌아왔던 것이다.

이렇게 독특한 물이 이 지구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구를 ‘물의 행성(watery plane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물만 있으면 어디에나 생명체들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고, 화성에 로보트를 보내고 지구 비슷한 행성들이 있는지 이웃 별들을 기웃거리고 있다. 이렇게 많은 지구의 물들은 언제 생겨났으며, 물만 있으면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날 수 있을까?

### 물의 기원

물은 두 개의 수소(H)와 한 개의 산소(O)로 구성된 아주 간단한 분자다. 진화론자들은 비핵과정에서 원초 에너지가 작은 소립자로, 소립자들이 가장 작은 원자이 수소로, 또 원자들이 뭉쳐 더 큰 원자와 분자들이 만들어 졌다고 믿는다. 물도

이 과정에서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이 우주에는 수소가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우주 어디에나 물이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물은 액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얼음인 고체나 가

## 물만 있다고 생명체 살지 못해, 저절로 만들어질 수도 없어 인간성장에 나타난 무질서 법칙 역행 목적률 답은 '하나님'



**물의 행성 지구**  
물에 완전히 덮인 상태로 가장 먼저 창조된 지구는 아직도 많은 물과 생명체들을 가지고 있다.

스 상태인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데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액체의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액체상태의 물을 가진 행성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지구처럼 물이 넘쳐나는 행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맨 처음에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이 지구의 물질 중 한 가지가 물이었다. 그것도 엄청난 양의 물이 맨 처음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upon the face of the waters)에 운행하시니라”(창1:2). 또, 맨 처음 창조된 지구는 물로 완전히 덮여있었는데 창조 둘째 날 물과 물 사이에 공황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구는 물로 덮여 있었다. 창조 셋째 날이 되어서야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를 형성했을 때 물이 드러났었다(창1:6-10). 하

나님은 모든 생명체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소중한 물을 엄청나게 많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자이므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 물질의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법칙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창조의 일정을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무질서하게 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질서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논리적으로 순서를 따라 차근 차근 진행하셨다. 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물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그 후에 창조하셨다.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 맨 먼저 지구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지구를 완벽하게 꾸미셨다. 그리고 사람도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으시고 당신의 창조를 이해하고 당신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다.

물만 있으면 생명체가 존재할까?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거절한 사람들은 물만 있으면 생명체

는 저절로 존재할 것으로 믿도록 세뇌되어 있다. 이렇게 진화론으로 세뇌된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해주고자 과학자들은 그 증거들을 찾으려 천문학적인 재정을 사용하고 있다. 정말로 물만 있으면 생명체는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분명한 사실은 정작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그 일을 직업으로 하는 것이지, 지구 밖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기대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럴까?

액체상의 물은 아니지만 지구 밖에도 물은 많다. 그러나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물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적당한 기체도 있어야 하고 영양분도 있어야 한다.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미생물은 공기(산소)가 없이 살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를 기대하지 않는 더 중요한 이유는 생명체 그 자체의 복잡함 때문이다.

가장 작은 생명체가 세포다. 보통 세포는 1mm의 100분의1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정도의 크기는 사람의 맨 눈으로는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로 이루어진 자신의 손과 몸과, 동물들과 식물들을 보면서서도

정작 세포는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세포가 이렇게 작다고 해서 세포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 수를 세어보려 한다면 비명을 지르고 말 것이다. 그 수는 500만 개로 구성된 보잉747 비행기 200대의 부품 수에 맞먹는다. 아직도 과학자들은 이 생명체의 부품들 중에 겨우 몇 가지만을 흉내 내어 만들 수 있다. 비행기의 부품들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처럼 생명체의 부품들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비행기 부품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도 비행기로 조립되지 않는 것처럼 더 복잡한 생명체의 부품들이 스스로 조립될 수도 없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확실한 법칙들 중에 하나가 ‘무질서의 법칙’인 열역학 2법칙이다. 물질세계에서 절대적인 법칙으로 여겨진다. 이 법칙에 의하면 물질들은 끊임없이 무질서해지지만 한다. 세 집은 헌 집이 되어 무너지고, 새 차는 헌 차가 되어 폐차장으로 보내진다. 저절로 거꾸로 진행되는 일은 절대 없다. 그러므로 생명체의 부품이 저

### 생명의 근원

절로 만들어지고 저절로 모여들어 가장 간단한 생명체인 세포로도 조립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체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은 모든 과학자들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생물 교과서에 ‘모든 생물은 생물로부터’라는 ‘생물속생설(biogenesis, 生物續生說)’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생명체들은 잠시나마 무질서의 법칙을 역행하는 유일한 물체다. 모든 무생물들은 계속해서 붕괴되지만 태어난 어린 생명은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자라간다. 태어난 아이보다 수정란이 자라가는 속도는 더욱 경이적이다. 물질의 법칙을 위반하는 현상을 우리는 통상 ‘기적’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생명체는 존재 자체가 기적이고 성장하는 것이 기적이다. 왜 생명체는 물질로 되어 있음에도 그 물질의 법칙을 따르지 않을까?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과학자들은 그것을 목적론(teleonomy)이라 하는데 누가 그 목적물을 물질 속에 집어넣은 것일까? 가장 완벽한 그리고 유일한 대답은, 생명체들이 살게 하는 물을 창조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14:6).

▲이메일: mailforwsc@ch@gmail.com

# 영성칼럼



**이희영 사모**  
(뉴저지복음성경교회)

## 복의 근원으로 빚어진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창12:1, 2).

우상을 만들던 아버지 밑에서 살던 그의 삶은 아이가 없는 것을 빼곤 평탄한 삶이었습니다. 아이에 목마른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번쩍 뜨여 흘린듯 안정된 곳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나섭니다.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저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저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는 기막힌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지기에 그의 전 인생은 우여곡절의 파도라가 됩니다.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외지에서 생존위해 그가 만난 모든 상황들은 믿음으로 사는 훈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터질 때 자신도 모르게 익숙한 세상적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자기만의 머리를 썼지만, 그것들로 인해 오히려 결국엔 자신의 치부가 들어납니다. 적나라하게 자신의 수치가 드러날 때도 하나님은 마치 과잉보호 부모처럼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들어주시고 보호해주셨습니다. 절대적 실수에도 책망치 않으시고 너그러이 봐주시는 하나님의 넓은 배려가 아브라함이 마음 놓고 실수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리저리 겪어가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기회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렸을 때 아내 사를 방패로 사용하는 비겁한 행동을 하다가 일생일대의 창고를 당하지만 그 아내 덕에 목숨은 물론 물질은 덤으로 얻어서 보호해주는 은혜를 크게 입습니다. 그 덕분이었는지 아랫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너그럽고 책임지는 사랑을 합니다. 별로 위아래도 모르고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내 것으로 챙기는 양치기 조카를 계속 양보하며, 사랑해주고 알뜰살뜰 자기 아이처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주는 믿음직한 어른의 역할을 너무나 잘해냅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일로 이성의 아내를 찾아주는 좋은 종, 그가 그렇게 아브라함 가정에게 축복의 나래를 펼치는 이가 된 것은 물론 그간 함께 지내오며 나누어진 아브라함과 그의 진실된 인격적인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정녕 복 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장구한 세월이 걸리긴 했어도 그의 자손들로 인해 많은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요. 무엇보다도 평생 그를 가까이한 주위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충성하는 이들이 가득한 아브라함입니다. 평생 배푼 주님의 사랑의 배려들이 자신에게 돌아와 주었으니 복을 잘 관리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복들을 받았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은 너무나 복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보장된 복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각자 안에 다른 복을 나누어 심어주셨습니다. 복은 나누고 사용할 때 나의 것이 됩니다.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기회 삼아 이웃을 섬기고 세우는 마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으로 내 안에서 찾아내어 복으로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을 의지하며 받은 사랑, 열심으로 나누며 사는 복됨으로 살아가시기를.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안내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부예배: 오전 11:00 주일새벽예배: 오전 7: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b>남부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6: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1:00 Tel. (841)-841-0821, Fax. (704)841-1625 목사관: (704)9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주일 6: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목사관: (704)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홍운 주일1부예배: 오전 9:00(한국어) 주일2부예배: 오전 10:1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한국어) 수요찬양: 오후 8:00 수요성경: 오후 8:00 Tel. (410)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bourne Rd., Levittown, PA 19057	<b>벤델교회</b>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한): 오후 1:45 EYM(한):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licott City, MD 21042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EYM(한): 오후 1:30 EYM(영): 오후 7:00 EYM(한/영): 오전 11:15 주일학교: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b>볼티모어교회</b>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Tel. (410)337-9448, 882-0181, Fax. 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
<b>살롯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1부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254)634-8705, (254)501-4933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전 7:00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찬양: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eattle.org	<b>알칸사 제자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425-5178,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rasc.com	<b>앵커리지델리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b>엘파소델리문교회</b>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251)542-0288, Fax. (251)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b>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부예배: 오전 11:00 주일새예배: 오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 오후 7:45 수요성경: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c.org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licott City MD 21042	<b>큰주교회</b>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매일새벽기도회(금, 토, 주)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licott City MD 21042	<b>타코마 삼일교회</b>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0:00 새벽예배: 새벽 5:30(화-금) 새벽 6:00(토) Tel. (253)535-6207, 531-8424 Tel. (253)535-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b>타코마새생명교회</b>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말만)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53)536-6675, Fax. (253)474-9515 www.hwalichurch.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수명 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53)536-6675, Fax. (253)474-9515 www.hwalichurch.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b>템피조교회</b>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말만)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kpcraz.com Tel. (480)726-0191, Fax. (480)857-390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b>하트포트제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60)8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739-1004, Cell. (808)218-4592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	<b>에덴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창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739-1004, Cell. (808)218-4592 1053 6th Ave., Honolulu, HI 96816	<b>하와이 한국교회</b> 담임목사: 김순환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8)277-2936, 557-1778, Fax. (808)947-5151 1351 S. Beretania St., Hon., HI 96814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wal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 교육선교 위한 제7차 국제교육협력컨퍼런스 미드웨스트대학교, 15개국 30여 학교장 및 이사장 참석

제7차 국제교육협력 컨퍼런스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 제임스 송 총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Nick Guc-cione 웬즈빌 시장의 환영사를 시

작으로 미주리 주 하원의원 Chuck Gatschenberger의 기도, 미국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저명한 기독교학자인 William Federer IEC 총재의 메시지, 미주리 주 International Trade & Job Creation 분과의장인 Jerry Nolte 주 하원의원, Lindell F.

Shumake 하원의원의 축하 메시지, 그리고 각 선교지 학교 학교장 선교사들의 사역소개, IEC 활동소개, 학사관리시스템 소개, 지역 명문학교 탐방의 순서로 진행됐다.

세계한인선교협회(KWMC) 대표 의장 이승종 목사, KIMNET사무총장 이현석 목사도 참석해 IEC의 비전과 활동을 격려하며 "세계 교육 선교"를 중심 주제로 선정해 IEC와

KWMC 그리고 KIMNET이 공동으로 2013년 교육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제복음주의 협의회(IEA)가 미국의 기독교대학생과 은퇴교사들을 세계 교육선교의 현장에 참여시켜 선교지 학교들의 우수교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질적 업그레이드를 이루겠다는 비전을 갖고 시작한 국제교육협력기구(IEC)가 그 활동을 시작한 뜻 깊은 자리였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학교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15개국 30여명의 학교장 및 이사장들이 참석했다. (기사제공: IEA)



미드웨스트 대학교에서 열린 제7차 국제교육협력컨퍼런스



뉴저지교협 2차 임원 및 분과위원 월례회 모습

## 뉴저지교협 2차 임원 및 분과위원 월례회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상천 목사)가 지난 12일 뉴저지소망교회(담임 박상천 목사)에서 제2차 임원 및 분과위원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주요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증경회장단 초청 만찬: 19일 △'2012년 동계 청소년 연합수련회': 26-27일, 청소년분과 (벤엘연 합감교회회 정성만 목사) △2013년 신년 하례회: 1월 27일(주) 필그림교회 예정 △목회자 신분증 발행: 12월 중 신청서 발송, 수수료 50달러(부교역자는 담임목사 추천으로 발급),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매

년 회기 때마다 재발급 △'부부행복 학교' 무료 개설: 2013년 2월 4일-3월 25일 8주간, 여성분과(정정숙 패밀러티치 원장), 목회자와 사모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30분 △호산나청소년전도대회: 3월 1-2일, Fellician College.

또 2013년에 진행할 예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찬양제, '소망음악 콘서트'(음악 분과) △청소년 찬양경연대회, 청소년순결학교 (청소년 분과) △설교코리니(교육 분과) △교협기금마련 골프대회(체육 분과)

(기사제공: 뉴저지교협)

## "문제를 정의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월드미션대학교 주최 도은미사모 특강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는 "문제를 정의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주제로 가정사역 전문가 도은미 사모(브라질 동양선교교회)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10일 오후 7시, 가정세미나를 개최했다.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열린 도은미 사모 특강에서 도은미 사모가 강의하고 있다

임성진 부총장 기도로 시작된 이날 세미나에서 도은미 사모는 "가정 사역은 신학이 견고하지 않으면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좋은 아버지/어머니라는 세상적 개념을 기독교에서 똑같이 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 사모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주제를 가지고 만드셨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인생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며,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삼는 것은 인생의 주제 때문에 그렇다. 각 사람의 문제가 풀려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풀 수 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문제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국어 가 있고 그 모국어에 입각해서 대화를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한다. 모국어는 내가 태어나고 자라는 국가의 언어가 아니다. 부부나 동료

영성 그리고 감정이 있다. 영성은 지성과 감정보다 크다. 그러나 감정이 상하게 되면 영성과 지성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진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뇌성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설명하며 "아무리 속상해도 주를 붙잡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 내 부모를 죽인자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주제를 알면 내가 정의할 수 있는 문제를 알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은 도 사모의 강의를 들으며 현재의 당면 문제들을 재인식하고 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평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기독교문학동우회 출판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창조자의 뜻 헤아리는 맘으로 문학하라" 미주기독교문학동우회 문집 출판 감사예배

미주기독교문학동우회(회장 이철수 목사)가 지난 16일 신광교회(담임 한재홍 목사)에서 다섯 번째 문집 '해이기독문학' 출판 감사예배를 드렸다.


1부 예배는 최순이 전도사 사회

로 기도 배임순 목사, 말씀 김길홍 목사, 광고 지인식 목사, 축도 한재홍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길홍 목사는 "기독교문학의 의미"(요3: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피조물은 창조자의 뜻에 의해 살

### 투고시

## 그분을 경배하려면



**이용남 목사**  
(헤세드글로벌 미션교회)

그분을 만나려거든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가시오  
그 곳은 본디 사람이 묵는 곳이 아니요 말이 묵는 곳이고  
침대 대신에 구유가 전부요 의자 대신에 지푸라기가 전부일거요  
향긋한 과일 냄새가 아니라  
당신의 코끝을 자극하는 말뚝 냄새가 있을 뿐이요  
그 곳에 갓 태어난 한 아기 말구유에 누워있을 것이요  
아기를 바라보며 지친 물골이지만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신비감과 영광에 사로잡힌  
아이의 부모 인 듯 사내와 여인이 있을 것이요  
말구유에 누인 아기  
그 분이 바로 유대를 다스릴 자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요  
하나님이 그 분을 위해  
수 천 년 예비한 곳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마구간이요  
그러니 마구간이라 탓하지 마시오  
말구유에 누워 있다고 내려다보지 마시오

그분을 경배하려거든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다 마구간으로 가시오  
그 곳에 몸을 살며시 마구간으로 들여놓고  
발을 살포시 말뚝을 피해 들여 놓으시오  
그 것 가지고 수고라마시오  
지금 당신 눈이 보는 대로 말구유에 누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예수시오  
그러니 얼굴을 찌푸리고 손으로 코를 막지 마시오  
그분을 향해 정중히 무릎을 꿇고 엎드시오  
그래야 그 분이 말구유에서 경배를 받으실 거요  
당신은 경배하고 나면 마구간을 벗어날 테지만  
그분은 그 곳에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실 테요

그분을 만나려거든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가시오  
그분을 경배하려거든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다 마구간으로 가시오

아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보여준 세 가지 계시자신, 성경,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만남의 역사를 이루야 한다. 이 만남은 하나님이나 2인칭이 돼 관계회복이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런 마음으로 문학을 해야 기독교문학"이라고 강조했다.

2부 출판기념회 및 축제의 밤은 최원정 전도사 사회로 이철수 회장의 인사, 축사 문성록 목사, 김해중 목사, 변천수 회원, 서평 이숙중, 편 집후기 허도행이 했다. 시낭송은 초대시 허금명, 회원작품은 백명훈 장 진석 김경락 임종성 김요한, 수필낭송 노상석 장로 등이 했다.

이날 음악은 지인식 목사부부, 김영환 테너 등이 맡아 기도, 오 할리 나잇, 거룩한 성 등을 불렀다. 또 특별 퍼포먼스로 왕같은제사장 선교단인 '나비 워십'과 '야비 사령대'를 부르기도 했다.

(유원정 기자)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h3>						<h4>기쁨과 영광교회</h4> <p>담임목사: 전희수 교육목사: 케더린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9:00 금요찬양: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p> <p>Tel: (718)359-7883, 직통: (646)270-9771 41-44 149th Place, Flushing NY 11355 E-mail: joynglorych@yahoo.com</p>		<h4>낙원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제자훈련: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 오후 8:45</p> <p>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211-06 48th Ave, Rahway, NJ 07065 E-mail: leonpark@gmail.com</p>	
<h4>뉴욕갯세미나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1부: 오전 9:00 주일예배2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제자훈련: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718)464-2295, (718)358-6225, Fax: (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ine.org</p>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제자훈련: 오후 8:30 금요찬양: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p> <p>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p>	<h4>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해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제자훈련: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민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9:30 수요제자훈련: 오후 9:00 금요찬양: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461-2810(Fax: 경음),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org</p>	<h4>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h4> <p>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718)694-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org</p>	<h4>뉴욕중부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p> <p>Website: nyjoongbo.org Tel: (718)279-2757, 2758, Fax: (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y, Little Neck, NY 11362</p>	<h4>뉴욕초대교회</h4> <p>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718)639-3021, Fax: (718)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p>			
<h4>뉴욕효신장로교회</h4> <p>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각 1부일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8:30 3부예배: 오전 10:15 4부예배: 오전 12:00 5부예배: 오전 1:30 6부 BM&amp;EM: 오후 3:00 7부예배: 저녁 7:30 수요제자훈련: 오후 8:30 새벽기도회: 새벽 6:00(월-토)</p> <p>Tel: (718)762-5756, 2525, Fax: (718)961-3111 42-15 166th St, Flushing, NY 11358</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주 주, 주3)</p> <p>Tel: (732)310-0022(교회), Fax: (732)537-9742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p>	<h4>리빙스턴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영양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강좌: 오후 12:30 주일학교강좌: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p> <p>Tel: (718)886-2171, Fax: (718)8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p>	<h4>롱아일랜드성결교회</h4> <p>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www.gospeldus.org Tel: (516)333-7577, 목사실: (516)746-4084 15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p>	<h4>베다니교회</h4> <p>담임목사: 장동찬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25, (5:15)토</p> <p>웹: Tel: (973)694-3880, (973)694-3880 461 Alps Rd, Wayne, NJ 07470 포스트: 430 Main St, Torr, NJ 07024</p>	<h4>어린양교회</h4> <p>담임목사: 김수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2: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718)899-8309, Fax: (718)899-8433 69-38 47th Ave, Woodside, NY 11377</p>	<h4>유니온연합감리교회</h4> <p>담임목사: 박태열 1부 기도특별모임: 오전 9:00 2부 중보기도모임: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0:45 EM 영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32)396-0444, 목사실: (908)518-0934 466 W. Grand Ave, Rahway, NJ 07065 E-mail: Leonpark@gmail.com</p>			
<h4>주비전교회</h4> <p>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5:00 영양예배: 오후 1:00</p> <p>Tel: (718)787-8999, borhee@hotmail.com 70 Plandema Rd, Manhasset, NY 11030</p>	<h4>중부뉴저지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후 1:00 영양예배: 오후 2:00 목요찬양예배: 오후 8:15 매일새벽예배: 오전 5:37</p> <p>Tel: (732)310-0022(교회), Fax: (732)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박규성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15 목요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qpc.org</p>	<h4>퀸즈인민교회</h4> <p>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15 목요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762-1150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gatschenberger.com</p>	<h4>한마음침례교회</h4> <p>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 오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gmail.com</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4>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h4>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8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9-010</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8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9-010</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목요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derado SP CEP 01505-010 www.kapcc.org</p>	<h4>브라질 새사망교회</h4> <p>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목요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후 7:00</p> <p>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고. 중부예배: 오후 9:00(주일) 오전 9:30(주일)</p> <p>Tel &amp;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h4> <p>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대학 학장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후 6:00 (1, 2, 3, 부 스페니쉬 학교)</p> <p>Tel: (595)21-574-985 E-mail: hanmkim@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ón-PARAGUAY</p>			



# 동부교계 기사판



## 뉴욕목사회 신년 금식기도성회

뉴욕목사회(회장 최예식 목사)가 주최하는 미국과 조국을 위한 신년 금식기도성회가 2013년 1월 1일(화) 오후 5시부터 3일(목) 정오까지 필라델피아에 있는 파인브룩 바이블 컨퍼런스 앤 리트리트센터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60달러, 강사는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담임). ▲문의: (646)763-4211, (718)813-6580

## 퀸즈장로교회 성탄찬양예배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성탄찬양예배가 23일(주) 오후 4시 본교회당에서 열린다. 이날 연합찬양대가 준비한 '천지창조'가 공연된다. 또 25일(화) 오전 10시에 드리는 성탄축하예배에는 교회학교 각 부서가 출연한다. 한편 12월 26일부터 27일 사이에는 중고등부 겨울수련회가 각각 열린다. ▲문의: (718)886-4040

##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담임 최영 목사)가 오는 26일과 27일 중고등부(6-12학년) 겨울 수련회를 갖는다. 장소는 레오니아 UMC(396 Broad Ave, Leonia 07605)이며 회비는 30달러(21일 이후 40달러), 강사는 조 강 목사(필그림교회). ▲문의: 201-696-8044

#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을 보이라” 제41회기 뉴욕목사회 이취임식 및 성탄축하 예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목사회”(요일4:11)라는 표어를 걸고 출발한 제 41회기 뉴욕목사회(회장 최예식 목사) 이 취임식 및 성탄축하 예배가 지난 11일 저녁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렸다.



뉴욕목사회 이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날 회장으로 취임한 최예식 목사(뉴욕복원교회 담임)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해였고 새해 도 어려울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절대신앙을 가진 요셉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사랑하는 자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고자 힘쓰겠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며 기도를 당부했다.

이임한 김승희 목사(뉴욕초대교회 담임)는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잘 회기를 마쳤

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심에 감사하고 임원들에게 특히 감사하며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감사한다”고 말했다.

1부 예배는 황동의 부회장 인도로 기도 이광희 목회분과위원장, 성경봉독 전희수 회계, 설교 장영춘 목사(퀸즈장로교회 원로, 본지 발행인), 특송 뉴욕말알선교함합단, 헌금기도 이성현 목사, 축도 한진관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영춘 목사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딤후6:11-1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사도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 준 간곡한 서신서 내용을 전했다.

장 목사는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었다. 이 호칭에 걸맞는 목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교훈과 교만, 돈이며, 힘써 행할 것은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라고 강조하고 “경건은 좋은 예배자, 예배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며 목사가 예배자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 목사는 또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인내로 이기고 사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이취임식은 김기호 총무 사회로 이임사 김승희 목사, 취임사 최예식 목사, 공포패 증정(김승희 직전회장, 김희복 직전총무, 김홍석 직전서기, 이은수 회계),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 축사 김종훈 뉴욕교협 회장, 권면 박희소 목사, 광고 임병남 서기, 만찬기도 안창의 목사 순서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 ‘뉴욕 나눔의 집’ 기금모금 일일차집 열어

미동부 한인노숙인 쉼터 ‘뉴욕 나눔의 집’(대표 박상원 목사) 후원을 위해 지난 15일 일일차집을 열었다. 점심 바자로 김밥, 캘리포니아 롤, 오뎅, 떡볶이, 우동, 라면, 떡 등 간단한 식사와 커피, 차 등을 판매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픈한 일일차집에는 지역사회 후원자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



일일차집을 준비한 뉴욕나눔의집 스태프들. 앞줄 왼쪽 두 번째가 박상원 목사.

나눔의 집을 맡고 처음으로 연 일일차집 대표 박상원 목사(뉴욕풍성한국교회 담임)는 “나눔의 집을 맡고 처음으로 일일차집을 계획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

게 나눔의 집 사역을 알리기 원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동 장소가 낮에는 노숙인들의 쉼터로, 밤에는 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재 지하방에 5명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 뉴욕장로성기단 2012년 송년 모임

뉴욕장로성기단(단장 손성대 장로) 2012년 송년 모임이 지난 11일 저녁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렸다. 1부 예배에서 단독 이규섭 목사(퀸즈한인교회 담임)는 마태복음 13장 44-46절을 본문으로 “새로운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사회는 김양득 장로, 기도는 박용기 장로가 맡았다.



뉴욕장로성기단 송년모임에서 이규섭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2부 만찬 및 친교에서 단장 손성대 장로는 “2012년 한해를 보내면서 성기단과 이사회가 함께 송년모임 갖게 된 것을 감사하며, 한 해 동안 열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

광 돌리게 된 것과 도움을 준 이사회와 수고한 임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오용환 장로의 만찬기도 후 시상식과 선물교환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필그림선교무용단 최윤자 집사가 “주기도문” 선교무용을 하기도 했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성기단)



뉴욕목사회 첫 임실행위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미국과 조국위한 신년금식성회’ 주 안건 뉴욕목사회 첫 임실행위 열고 41회기 회무시작

뉴욕목사회(회장 최예식 목사)가 지난 13일 첫 임실행위를 열고 41회기 회무를 시작했다.

이날 임실행위 주요 안건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흘간 필라델피아 파인브룩 바이블 컨퍼런스 앤 리트리트센터에서 열리는 ‘미국과 조국을 위한 신년금식성회’에 관한 것으로 준비위원장 김수태 목사는 참석자들이 예상 인원 및 후원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이어서 유상열 목사 인도로 금식성회를 위한 합심 기도 시간을 가졌다.

성회를 위한 준비기도회로 △20일(목) 오전 11시 뉴욕복원교회 △27일(목) 오전 11시 뉴욕순복음연합교회에서 각각 모이게 된다. 또 대회장 최예식 목사를 위시해 부대회장 황동의 목사, 진행위원장 이재득 목사, 자문위원장, 분과위원회 등 조직표도 발표했다.

2013년 목사회 주요사업으로는 △1월 1-3일: 신년금식성회 △5월 6일: 4개주 목회자 체육대회 △9월: 성지순례(이집트-요르단-이스라엘) 등을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상태 감사 사제로 기도 조병광 수석협동총무, 설교 최예식 목사, 광고 김기호 총무, 축도 황동의 부회장 차례로 진행됐다.

최예식 목사는 “광야에서 조심하라”(시95:8)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흔들리는 광야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간섭함”이라고 전제하고 “딛고 추운 광야생활을 통해 인생의 일들을 깨우치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은총을 받을 수 있다. 뉴욕목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정정숙 원장(앞줄 왼쪽)과 패밀리터치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앞줄 시계반대방향으로 안창의 목사, 김중정 부원장, 박근재 뉴욕지부장.

## 패밀리터치 정정숙 박사 책 출판 ‘가정원칙’ 이어 간증집 ‘아빠의 선물’

크리스천 가정의 필독서 ‘가정원칙’ 저자 정정숙 박사(패밀리터치 원장)가 최근 ‘아빠의 선물’을 출간했다.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부제를 단 ‘가정원칙’은 한국에서 우수출판/교양도서로 지정된 스태디셀러로 한국의 2천여 도서관에 비치됐다.

최근에 출간된 ‘아빠의 선물’은 간증집으로 “삶이 선물이듯 고난도 선물입니다”라는 부제를 달고 있으며 종교베스트셀러, 종교출판사 추천도서로 지정됐다.

‘가정원칙’은 정 박사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과 15년 간의 상담사역을 통해 얻은 핵심원칙 총 8가지 가정원칙을 소개하고 있다. 또 각 가정이나 교회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워크북과 1시간짜리 DVD

도 제작했다. 1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 박사는 “지난해에 출판된 ‘가정원칙’이 한국에서는 많은 호응을 받고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미주에서는 잘 소개가 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출간된 간증집 ‘아빠의 선물’과 함께 묶어서 주변에 연말연시 선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고 책 수익금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정사역단체 패밀리터치 기금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가격은 단체구입 시(2권 묶어 5집 이상) 40달러, 현재 가격은 ‘가정원칙’ 24달러, ‘아빠의 선물’은 30달러이다.

▲구입처: www.familytouchusa.org

(유원정 기자)

기도시간을 **확보**하라 기도응답을 **확신**하라 기도범위를 **확대**하라

# 12월 미주갈멜산기도원정기 기도성회

| 일시 2012년 12월 13일(목, 저녁) ~ 20일(목, 저녁)(새벽 5:30, 오전 10:30, 오후 7:30)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 본당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문의 : (818) 306-4912

|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대표(신학생 훈련단체) KWMA 운영이사/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LA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한국의 안양에 위치한 갈멜산금식기도원에서 2012년 2월 19일에 설립한 기도원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자 세워졌습니다. 코리아타운 내 카타리나와 W 8th 코너에 위치하여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주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기도회와 매일 조성근 담임목사가 직접 성회를 인도하는 매일 정기기도성회가 있습니다. 신비주의와 자유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교회중심과 말씀중심의 기도성회에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있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회복의 감격, 그리고 새로운 헌신의 결단이 있습니다. 세신자들은 몇 년의 신앙이 앞당겨지고 직분자들은 견고하고 성숙한 신앙을 지니게 되며 사역자들은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새로운 인생이야기의 첫머리가 됩니다. 지금도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이제라도 기도하면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 2012 '아주사의 밤' 성황

## 동문 성악가 콘서트, 장학금수여식, 세미나도 함께

2012아주사의 밤이 17일 오후 6시 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 총장 존 윌레스 박사) UTC홀에서 분교 한인동문회(회장 최장식 목사)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아주사의 밤은 만찬, 콘서트, 장학금 수여식, 세미나, 찬양의 시간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됐다.

최장식 동문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아주사의 밤은 분교 출신 성악가들의 콘서트로 이어져 음악대학교 졸업생인 소프라노 어우경이 '거룩한 성을, 신학대 졸업생이자 성악가인 소프라노 김우영, 테너 소병현, 테너 오우영이 나서 'The Prayer', Nun magt ihr stolzen friende schrecken', '하나님의 은혜', '그리운 금강산', '하나님의 어린양'을 불렀으며 마지막 곡은 출연자들이 함께 'You raise me up', 'O Holy Night' 등을 불러 아주사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콘서트에 이어 진행된 장학금수여식을 통해 분교 신학대학원 재학생 모진홍, 스카티 데이스, 송정화, 고광훈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분교 동문이자 나성동산교회 담임인 한기형 감독이 강사로 나서 '목사가 가져야 할 미래목회의 비전'(왕상19:12, 13)이



2012아주사의밤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한 감독은 자신의 30년 목회경험을 토대로 후배목회자들에게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내었다.

세미나에 이어 가디스워십밴드(인도 이요한 전도사)가 찬양인도를 함으로 아주사의 밤 열기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분교 동문이자 전 동문회장 정해진 목사(남가주명성교회 담임)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APU 한인동문회는 2013년

### YNOT파운데이션 제9회 '지역을 섬기는 프로그램' 18개 단체에 총10만 달러 지원

YNOT파운데이션(YNOT 대표 이사무엘 목사)은 13일 오후 6시 나성영락교회(임시담임 박희민 목사) 친교실에서 제9회 지역을 섬기는

1월 7일 LA캠퍼스에서 이민법과 목회자 세그먼트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강사는 이경희 이민법 전문변호사가 '궁금한 이민법 물어보세요'라는 주제로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까지, 그리고 전명제 회계사가 '목회자 세그먼트 궁금하면 물어보세요'라는 주제로 11시10분부터 12시30분까지 각각 강의한다.

(박준호 기자)

는 프로그램 지원행사를 열고 18개 단체에 총 10만 달러를 지급했다.

고영식 YNOT 재단이사장은 이

날 환영인사에서 "지역을 섬기는 프로그램을 통해 비영리단체들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했다. 올해는 규모는 작지만 18개 단체에 지원하게 되어 감사한다"고 말했다.

박희민 목사는 "나성영락교회가 현재 위치한 장소로 옮기면서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러나 교회의 이해부족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배려를 다하지 못했다. 그러나 임명된 목사가 부임하면서부터 조금씩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게 됐다. 올해는 나눔축제를 통해 모아진 10만5천 달러를 미 주류장애인 공동체를 도왔으며 10만 달러를 18개 한인비영리단체에 그랜트로 수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또 "지역을 섬기는 프로그램은 단지 나성영락교회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돼 지역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제9회 지역을 섬기는 프로그램 지원금 수혜단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

아가페홈미션, 남가주말선교단 사랑의교실, 아태분쟁중재센터, 아태여성센터, 푸른 조상의 집, 비전 시각 장애인센터, 조이장애인센터, 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 한미연합회, 한인가정상담소, 코리아북지센터, 한인청소년회관, Legal Aid Foundation of LA, LTSC Community Development Foundation, 나눔선교회, 재미한인봉사자회, 샬롬장애인선교회, 율타리선교회.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west

#### 오렌지카운티교협 송년회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경엽 목사) 송년회가 27일(목) 오후 6시30분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개최된다. 송년회는 식사, 예배, 레크리에이션 순서로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자들은 가정 당 20달러 상당의 선물을 하나씩 준비하면 된다.

▲문의: (562)691-0691

#### 미주서부합동 미서부노회연합 성탄축하 찬양예배

예장미서부합동 서부노회연합 성탄축하 찬양예배가 23일(주) 오후 4시에 사랑한인교회(담임 하재식 목사, 2801 W. Temple St., LA)에서 열린다.

▲문의: (213)380-0085

#### 인랜드지역 성탄절 연합예배

인랜드교역자협의회(회장 박해성 목사)는 인랜드지역 성탄절 연합예배를 23일(주) 오후5시 남가주웨슬리교회(담임 박해성 목사, 375 N. Towne Ave. Pomona, CA)에서 개최한다. 이날 설교는 류수열 목사(한울림교회 담임)가 맡는다.

▲문의: (909)397-5737

#### 전도사 청빙

얼반침례교회(담임 한중수 목사)는 유년부(K-2nd Grade)와 초등부(3rd-5th Grade) 전도사를 청빙한다. 자격조건은 정규 신학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로 최소한 1년 이상 어린이 사역에 경험이 있는 자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이며 이메일 : mindofx@hot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mindofx@hotmail.com

#### 한인 크리스천 청소년 ESL 캠프

한인 크리스천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적 ESL 캠프가 성경연구 선교단체 THS(대표 장진호) 주최로 1월 3일(목)부터 24일(목)까지 열린다. 청소년 캠프의 숙소와 강의 프로그램은 패서디나 지역 윌리엄케리 대학에서 이뤄지며 강사는 예수전도단 강사들이 나선다. 참가비는 2500달러.

▲문의: (818)823-7605



베들레헴교회에서 열린 헬로우 로이 찬양제 에서 프림라베라 트리오가 연주하고 있다

### 베들레헴교회 '헬로우 로이 찬양제' 개최

베들레헴교회(담임 서종천 목사)가 주최한 '헬로우 로이 찬양제'가 15일 오후 6시30분에 열렸다.

이날 공연은 프림라베라 트리오(파이노 강혜정, 첼로 김성은, 바이올린 김혜연)이 'F. Mendelssohn piano trio, op 49 d minor 1st movement', 'Piazzolla livertango A. Piazzolla Invierno Porteno(winter)', 'Christmas Carol Let it snow Greensleeve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를 연주했으며 스킵드루 합창단이 'Open your eye', 'more power

more love'를 불렀다.

이어 스페셜 게스트로 CCM가수 최윤영 씨가 나서 '정결하게 하는 샘'과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불렀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베들레헴교회 찬양팀이 '고요한밤 거룩한밤'과 '기쁘다 구주오셨네'를 부름으로 이날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본 교회 파김장과 친교실에서 바자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수익금은 국제 NGO 단체 월드웨어에 전달된다.

(박준호 기자)



베데스다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 베데스다 학생찬양팀이 찬양하고 있다

### 베데스다대학교 크리스마스 콘서트

베데스다대학교 음악과(학과장 조에스터 교수)가 주관한 '베데스다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12일 저녁 7시30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콘서트는 베데스다대학교 음악과 학생들이 나서 아름답고 은혜로운 곡들을 선사했으며 한 곡 한 곡 마칠 때마다 이날 공연 참여 교인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콘서트는 'Gabriel Faure Dolly Op.56'을 김효진(마림바), 어혜란(바이올린), 이연신(플룻), 이지수(피아노)가, 'W.Gluck/Orfeo ed Euridice-Che faro senza euridice'

를 우성영이 불렀으며, 'G.Donizetti Sanate for Flute and Piano'를 이연신(플룻)과 김지연(피아노)가, 그리고 'Mercy Mercy Mercy'를 색서 폰 연주로 김승기와 켈빈박 교수가 협주했다.

또한 베데스다대학교 찬양팀 'HIM'이 '찬양하라'와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를 이은주가, '고요한밤 거룩한밤', 그리고 박수진과 강현선이 듀엣으로 '우리 때문에'를 불렀다. 이날 콘서트는 베데스다대학교 합창단(지휘 렌디김 교수)이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부른 후 진유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YNOT파운데이션 주최 제9회 지역을 섬기는 프로그램 지원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소프라노 박혜숙 크리스마스 콘서트

소프라노 박혜숙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16일 저녁 7시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콘서트는 소프라노 박혜숙 씨가 'Exsultate, Jubilate', 'Ave Verum Corpus Natum', 'Agnus Dei', 'Panis Angelicus', 'Laudamus Te',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A Christmas Carol', 'Ave Maria', 'O Holy Night' 등을 불러

성탄절을 앞둔 남가주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특히 피아니스트 에스더조(베데스다대학교 음악과장)와 바이올리니스트 주일엽 씨가 출연해 무대를 더욱 빛내주었다. 소프라노 박혜숙 씨는 현재 베데스다대학교 음악과 보컬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소프라노 박혜숙의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OC한인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 모나리자

## 스킨케어

### Christmas Special Price 12월 31일까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상품권 \$30, \$50, \$70, \$100등으로 준비했습니다.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사위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리프팅/화이트닝케어	1회	<del>\$40</del>	\$35
여드름 케어	1회	<del>\$50</del>	\$40
팔슬림 케어(스페셜 기계도입)	1회	<del>\$40</del>	\$30
등 경락	1회	<del>\$50</del>	\$40
배 경락	1회	<del>\$40</del>	\$35
전신 경락	1회	<del>\$200</del>	\$150
Aqua Therapy	1회	<del>\$250</del>	\$200

**모나리자** 스킨케어 \*1회 케어도 환영합니다.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	\$100	유럽 .....	\$190
	캐나다 .....	\$110	남미 .....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아프리카 .....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p>■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p>	<p>■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p>
--	--



# 종교편향 우려하면서도 선심성 공약

## 박근혜 문재인 두 대선후보의 종교관 비교

대통령 후보의 종교관을 판단하는 데 좋은 '바로미터'는 종교편향, 미션스쿨, 동성애 문제다. 이들 이슈는 기독교인들이 목회·선교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제적 문제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기독교와 불교에 제출한 정책공약과 언론사 인터뷰 등을 종합·분석하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종교편향 문제와 관련해 박 후보는 불교계에 가까운 입장을 갖고 있으며, 문 후보는 불교계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종교편향 논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불교계가 제기한 것으로, 교계는 종교편향 당사자로 지목돼 적잖은 공격을 받은 바 있다.

박 후보는 "별도의 범법제정을 통해 종교 간 갈등을 방지한다는 것은 종교계에 대한 정부의 규제요 인시

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종교 사회 차별 방지법, 증오범죄법 제정 노력, 종교편향 공직자 엄단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반면 문 후보는 "공공행정에서 사스럽게 편향된 입장을 갖는 것이 문제가 되며 경중을 따져서 엄하게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그는 종교평화법 제정 및 관련 법률 개정, 다종교 사회 차별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미션스쿨의 종교교육권(채플 등 신앙교육) 문제에서 박 후보는 종교교육권을 인정하지만 문 후보는 강의석사 사건 이후 시행되는 어정쩡한 대체과목 운영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박 후보는 "동성애자를 합법

화하는 범법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문 후보는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아무리나 사실은 두 후보 모두 종교편향을 우려하면서도 그 가능성이 큰 선심성 공약을 내놨다는 것이다. 종교편향, 정교분리 위반은 국가의 행정·재정지원이 특정종교의 포교활동에 투입될 때 발생한다.

박 후보는 문화재보호예산 5000억원 증액·조성, 전통시장 규제완화 및 녹지보전 부담금 면제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사찰을 중심으로 한 불교회당공동체에 각각 1억~100억원 지원, '사찰의 공공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 "장거리 로켓 발사, 북한에 재앙 될 것"

## 한기총 성탄 메시지 · 교회언론회 논평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13일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북녘 땅과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자"고 호소했다.

한기총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그들이 무슨 연유로 미사일을 쏘는 것인지 알 수가 없

다"면서 "미사일 발사를 통해 무엇인가 만족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줄 수 있는 북녘 땅이 높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과 관련해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지도자, 안정적인 지도자,

신뢰성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 북한에 재앙 될 것"이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런 무모한 도발행위는 부대방이 돼 북한 체제의 붕괴를 앞당기고 세계 평화를 깨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이 남한 대선에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적 수준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새누리당 신천지 연관있다" 보도한 적 없어

## 국민일보, 허위사실 인터넷 유포 경계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기독교계가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우호적 관계에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가운데 국민일보가 마치 새누리당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를 한 것처럼 주장하는 허위 사실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허위 사실 유포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막말 파문을 일으켰던 팟캐스트 '나는 품수다의 김용민씨'가 지난 13일 오전 트윗을 통해 '개신교계 일부 친박들에게 국민일보 기사를 링크해주면 될 거불까요'라고 언급하면서 본격화했다. 김씨는 또 14일 오전에는 '신천지 의혹과

관련, 제가 한 일의 80%는 개신교계 언론 기독교방송과 국민일보 보도를 링크한 것입니다'라며 국민일보가 새누리당과 신천지의 연관성에 대해 보도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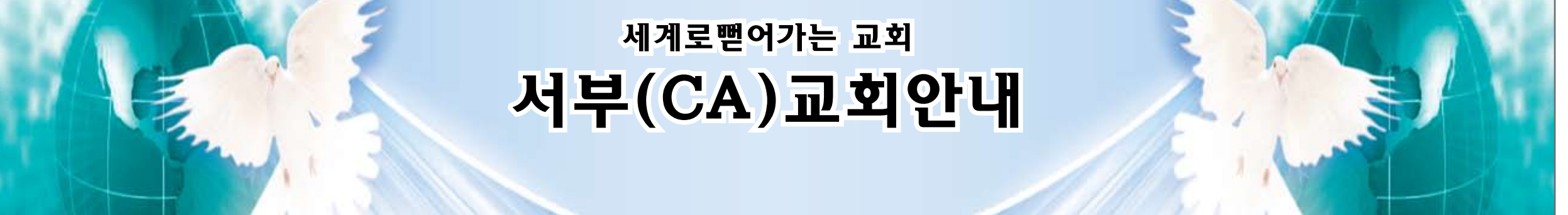
그러나 링크된 기사는 국민일보 기자가 지난 2월15일(인터넷판은 2월14일)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구리상담소 신현욱소장과 인터뷰를 통해 신천지가 정치적 세력화를 통해 대대적으로 포교에 나설 수 있으니 이를 경계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또 인터넷에서 나돌고 있는 국민일보 미션면 지난 2월8일자(인터넷판은 2월7일자) '이태형의 교회 이야기'에 실린 '새누리당? 신천지당?'

이란 제목의 칼럼 역시 악의적으로 왜곡, 인용되고 있다. 이 칼럼은 당시 한나라당의 당명 개정이 화제가 된 상태에서 성경적으로 '이름의 변화'가 뜻하는 바를 언급한 것이다. 칼럼 대부분을 성경적 내용들로 채웠으며 마지막 부분에 한자 문화권 사람들에게 새누리당을 소개할 경우 '어 새는 신(新), 누리는 천지(天地)'가 된다는 점을 언급했을 뿐이다. 칼럼에서는 '새누리'라는 이름이 이단인 신천지라는 종파와 연관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에 개명작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칼럼전체를 읽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그런 맥락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국민일보는 향후 본보의 기사 칼럼 등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미연합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lafgusa@yahoo.com / www.lafgusa.com Tel: (323)193-4489, Fax: (323)193-448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b>나성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 박형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신·영예배: 오후 3:30 Tel: (213)413-1600, (F) (213)413-9111 1925 Wilshire Blvd., L.A., CA 90057 www.youngnak.com	<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 박희민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영양예배: 오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영성)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45(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b>나성서부교회</b>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Y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Tel: (323)939-7323, (F) (323)939-1656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www.picoafair.com	<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Y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EM, 대학부: 오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n.org
<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 김현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일영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b>남가주리더교회</b>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www.scdm.org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	<b>등문교회</b> 담임목사 : 최태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영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b>동양선교회</b> 담임목사 :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찬양예배: 오전 9:30 3부 영양예배: 오전 11:00 4부 영양예배: 오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466-1234, Fax: (323)466-09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정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학교: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번호 없음)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FB, LA, CA 90033
<b>드림교회</b>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 1부예배: 오전 9:30 영양 2부예배: 오전 11: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Tel: (626)783-0880, 0210 Fax: (626)783-6412 1305 E. Colorado St., Pasadena, CA 91102	<b>삼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바나나 18 세례사: 오전 6:30(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토) www.samsungchc.org Tel: (626)265-9890, Fax: (626)265-8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11:30(영양)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 평안교회</b> 담임목사 : 송정명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청년부/새벽) 오전 1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www.mijosepeacechurch.org Tel: (213)381-221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 손인식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2:30(영양) 주일예배 5부: 오후 2:00(영양) 주일예배 6부: 오후 7:00(월~토)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bc.org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www.bbc.org	<b>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b> 담임목사 : 임건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친양과 결별)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6:20(토)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b>브리지교회</b> 담임목사 : 장세정 주일 1부찬양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Tel: (213)384-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b>세계비전 교회</b> 담임목사 : 김영빈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 1부예배: 오전 9:00 영양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월, 금) Tel: (818)363-5887, (818)368-9883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 (818)893-98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안디옥장로교회</b> 담임목사 : 지운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기도회: 오전 11:00 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www.iaopc.org 2720 MontroseAve., Montrose, CA 91020	<b>얼바인침례교회</b> 담임목사 : 한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1:45 주일 5부예배: 오후 11:30 주일 6부예배: 오후 12:30(영양)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토) www.irev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00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12	<b>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 임영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영양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00 주일 1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Tel: (714)991-2029 / Fax: (714)373-3097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 정성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8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b>일서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양)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영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6:00 www.wilshirecchc.org Tel: (714)446-621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영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온누리새벽기도회: 365일 24시간 6:00(토) www.gracemc.org Tel: (714)446-621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14)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pc.org	<b>창대교회</b> 담임목사 : 이준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6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7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8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9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10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11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12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13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14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15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16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17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18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19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20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21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22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23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24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25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26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27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28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29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30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31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32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33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34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35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36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37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38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39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40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41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42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43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44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45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46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47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48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49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50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51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52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53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54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55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56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57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58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59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60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61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62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63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64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65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66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67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68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69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70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71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72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73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74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75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76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77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78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79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80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81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82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83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84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85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86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87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88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89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90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91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92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93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94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95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96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97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98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99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100부예배: 오후 3:00(영양) Tel: (909)388-2944, Fax: (909)388-2941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6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7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8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9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10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11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12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13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14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15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16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17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18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19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20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21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22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23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24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25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26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27부예배:		





###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 5. 사모의 침실가꾸기

사모의 성생활은 중요하면서도 어디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모들이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성추행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사모들의 책임도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적 부부성 생활을 사모들에게 알리는 책임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1. 성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성'이라고 하면 더럽다. 죄악이다. 추하다는 생각이 들어 멀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으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모들의 경우, 과거에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혹은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워온 잘못된 지식에 놀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들에게 성에 대한 바른 정의를 알려줌으로써 올바른 성생활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성은 거룩하다는 SAINT와도 통하는 언어입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방하지 말라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 합의를 분방하되 곧 다시 합하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성생활은 육신적인 일이지만 바울은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가 막힌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을 제대로 행하지 않을 경우 기도가 막히고 맙니다.

2. 성은 하나님이 찬성하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성을 주신 목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부부가 서로 한몸 된 증거를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 결혼의 삼요

소를 보면 독립, 연합, 한몸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한몸 되기 위해서는 우선 떠나야 할 부모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TWO BECOMES ONE" 이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한몸이 되는데 성이 다른 남성과 여성이 한몸을 이루는 것이 성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 남편목사 영적상태 검사위해 성생활 검토 비밀없는 진솔함, 불만 없는 부부금실 필수

의 옆구리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비밀이라고 강조했습니다(엡5:30).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을 우리의 보이는 세계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부부의 성입니다. 성을 귀하고 거룩하게 대하고 사모들의 침실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우선 남편의 생리부터 잘 알아야 합니다.

남편들은 목사를 포함해서 성욕이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남편이라 해도 이성애에 대한 성욕이 솟구치는 것을 아내인 사모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남편이 아닌 나의 남편의 요구사항을 잘 알아야 합니다. 건강상태를 체크해야 하고 기질과 취미도 알아야 합니다. 밤이 오기를 두려워하는 사모들에게는 이런 성생활이 부담이 되어 스스로 피하기 위해 교회에 달려가 철야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중에는 설교준비를 해야 하는 토요일엔 아내가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 성수주일을 해야 하므로 접근금지입니다. 평일에도 새벽기도에 늦으면 안되기 때문에 제대로 마음 놓고 즐길 수가

없습니다. 이리다 보면 그 어느 날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성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의 경우, 목회자인 교회 안에는 많은 여성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평신도들은 목사에게 은혜를 받으면 괜히 이성으로 보게 되며 옆에 있는 남편을 바라볼 때면 전에 없던 증세가 생겨 남편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목사에게 전화를 하거나 으스스한 곳에서 만날 것을 요청합니다. 목회자들은 어느 때든지 어디에서도 여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특권과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대낮에도 안방에 찾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모들은 더욱 더 남편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날이면 날마다 경찰이 되어 뒷조사를 하는 사모는 서로 피곤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자들의 성문제를 다루는 강의시간에 목회자들에 대해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는 들린 목사, 안 들린 목사, 억울하게 당한 목사,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어쩌다 처리를 잘 하지 못해 들켜버린 목사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들리지 않은 목사가 있고 순수한 마음

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벧전3:7).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것과 같습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다루는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라는 의미는 성생활을 말합니다. 아내에 대해서 잘 알고 연구하라는 의미입니다. 무턱대고 "내가 원하니 당신은 내게 하라는 대로 하시오"하면 사모들은 적지 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은 사랑하면 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내들의 경우에는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시간 분위기는 곳에서 마음이 열릴 때까지 따뜻하고 부드러운 대화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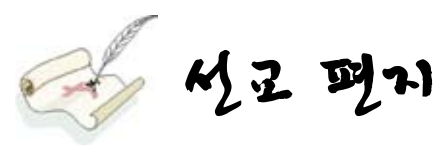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를 할 때를 얻기 위하여 합의를 행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함

### 남편목사 영적상태 검사위해 성생활 검토 비밀없는 진솔함, 불만 없는 부부금실 필수

이라"(고전7:3-5).

사모들에게 있어서 성생활이 다른 어느 여성들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 하나는 성생활과 성령충만의 분리입니다. 대체로 사모들은 성령충만하기 위해서는 성생활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자신의 남편의 영적상태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성생활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경적인가? 위생적인가? 올바른 방법인가? 건강한 정진인가? 요즘은 인터넷 홍수시대를 맞이하여 의외로 아내를 독수공방시키고 남편들은 컴에 앉아서 혼자 즐기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를 만족시켜주지 못해 아내에게 핀잔을 받을까 두려워서 일찍이 아내를 잠 재운 뒤 살짝 일어나 컴에 앉아 자기만의 황홀경으로 몰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에게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태에 있던 당시는 나의 "BEST"임을 고백하는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hwangsunwon@gmail.com www.godfamily.com



## 선교 편지

### 온두라스

사랑하는 동역자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세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28:30, 31)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결론 없는 마감입니다. 미완성과업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완성 즉 마음을 위한 강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 사도 이후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통하여 미완성과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역하고 있음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선교의 완성입니다(마24:14).

이 소중한 사역에 여러 동역자님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비록 온두라스의 작은 렌가 시골마을에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흔적들을 남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지난 한해 동안 베를루아신 하나님의 은혜와 동역자님들의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이곳에 전해진 복음의 사역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을 통하여 뿌려진 파종의 결실입니다. 저는 다만 이곳에서 이들과 함께 살면서 "함께 하는 것이 선교"라는 생각으로 이들을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요즘은 복음의 동역자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바울의 동역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 놓는 사람" "내 결여를 함께 한 사람" "나의 보호자" "소중한 것을 나누는 사람" 등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외로운 길을 걷고 있었던 선교사 바울에게 이들은 참으로 소중한 동지들이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할 즈음에는 함께 하는 동역자들이 그리워지는 시간입니다. "오래 알고 지내는 친구는 많지만, 뜻을 같이 하는 동지는 많지 않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며,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걸어가면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 즉 동역자들이 선교사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꿈을 꾸며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는 협력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무"(행3:4) 하는 것입니다. 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함께 살 때 시너지의 힘이 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협력 사역의 장을 준비하시고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이아미장로교회(신정인 목사님) 중남미 선교사 모임, 샬럿에서 모임 KIMNET 모임, 브라질에서 있었던 중남미포럼(강성일 선교사) 등을 통하여 협력의 열매를 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의 사역지에도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미국 LA에서 Randy Seo 선교사님과 Dr. John Tucher와 그의 부인인 Anna님께서 앞으로 사역을 함께 하시기 됩니다. Randy 선교사님은 어릴 때 브라질로 이민 가서 고등학교 시절까지 지나다가, 다시 미국으로 이민 와서 10수년을 보내면서 신학을 마치고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기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여러 나라에서 보낸 시간과 경험들이 사역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Dr. John은 미공군에서 군의관으로 예편하신 분으로 앞으로 의료선교를 하시기 될 평신도 선교사이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들을 후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8일에 온두라스에서는 예비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통령 및 국회의원 및 자치 단체장들의 후보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14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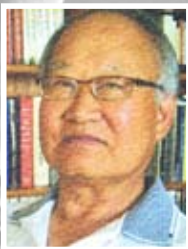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525-7767, HP. (0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0-20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곡동 870-10호	<b>금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빙구 금곡동 340-1(131-231)	<b>김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동성 주일1부예배: 오전 7:4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http://gimpoch.org Tel. (82)31-984-2939, Fax. (82)31-983-4853 경기도 김포시 수락동 264번지	<b>광주신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리기도회: 오후 9:00 Tel. (062)523-9419, Fax. (062)522-4834 500-170 광교로역서 북구 윤양동 936-1번지	<b>동경중앙교회</b>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9:00 Tel. (81)3208-8491~5, Fax. (81)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침례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용산동 1670-1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343-3679(이탈리아) VIA DEI QUINTILI 32-33 00175 ROMA, ITALY	<b>명성교회</b>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동 330-5, (134-830)	<b>삼보교회</b>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622-3 (158-053)	<b>새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침례인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김포시 수락동 1312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주일5부예배: 오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58-808)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86-996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 713-26호
<b>수영로교회</b>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92동 1418-1, (612-824)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2-568-0191, Fax. (82)2-562-2738 인천시 서구 불암동 416-4(404-270)	<b>승동교회</b>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인성동 137 번지	<b>시온소교회</b>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말-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오리동 419-2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오후 5:30 Tel. (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번 3-3, (150-051)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2-786-6579, 사택(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b>안양 제일교회</b>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6: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시 이천동 302-67 (140-031)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토)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로 415 www.yankok.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자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리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나결일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현동사무소 부평구 인곡동 299-1(10403-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새벽 5: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일동 448-23	<b>청주주님의교회</b>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성동 259-12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시 이천동 302-67 (140-031)



기독문학소설

《음》이라는 다른 이야기 (7)



정중해 박사 (문학인)

어느 토요일 새벽기도회가 끝나고 무영은 여느 때처럼 분당 뒷좌석 의자에 앉아 명상에 잠겨 있었다. 바로 그때 윤 목사가 걸어 나오면서 쭈그리고 앉았던 무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들기면서 그의 귀에다 속삭였다. 밖에 나가서 아침식사를 같이 하자라는 것이다. 그날 아침 윤 목사는 무영을 교회 근처에 있는 퍼킨즈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이 퍼킨즈는 오래 전에 무영이가 교우들과 같이 와서 조반을 먹은 적이 있는 식당이다. 그때 왔을 때는 좌석이 불편하고 실내가 우중충한 인상을 주었는데, 이번에 다시 와 보니 완전히 새 단장해서 식당 분위기가 달라질 정도로 고급화되어 있었다. 윤 목사는 안내하는 웨이트리스에게 아늑하고 구석진 자리를 부탁했다.

무영은 언제나 조반을 많이 먹지 않는다. 아침식사는 어릴 때도 달걀 류와 베이컨, 해시브라운 포테이토스와 같은 음식이니까, 그런 걸 먹을 바엔 고급 식당에 갈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아침을 사먹고 싶을 때는 으레 맥도날드를 이용했다. 아침식사에 관한 윤 목사의 식성도 무영이와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달걀 프라이와 햄과 커피 한 잔이면 충분했다. 그러나 윤 목사는 무영을 퍼킨즈에까지 데리고 와서 그런 걸로 대접하고 싶지는 않았다. 메뉴에 먹을 직하게 소개해 놓은 음식 그림을 가리키면서 윤 목사는 그런 걸 시키자고 유도를 했다. 무영은 모처럼 자기를 대접하려는 윤 목사의 호의를 받아드려 그 중에도 가장 호화스럽게 보이는 오므라이스를 주문했다. 윤 목사도 같은 것을 시켰다.

윤 목사는 음식이 나오기 전부터 무영의 근황이 궁금해서인지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다. 내조자 없이 집에서 식사는 무얼 해먹고 살며, 세탁물은 누가 빨며, 무슨 불편한 것이 없느냐고 묻고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자기 집에 연락을 하라고 했다. 윤 목사는 배우자를 잃은 무영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화제를 끌고 갔다.

웨이트리스가 주문한 음식을 들고 와 하나씩 얇전하게 식탁 위에 놓았다. 두 분에게 잘 잡수라고 애교를 떨고 물러갔다. 그래도 윤 목사는 음식을 들 생각을 하지 않고 졸곧 자기 이야기만 계속했다. 무영은 끝날 줄 모르는 윤 목사의 수다를 열심히 귀 기울이고 듣는 척 하면서 자기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허 선생님, 일본에서 이런 통계가 나왔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여자는 남편이 일찍 죽을수록 오래 살고, 남자는 아내가 먼저 죽으면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듣기 싫지만, 가만 보세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무영은 여태까지 그런 경우를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윤 목사의 그런 언짢은 소리를 듣고, 무영은 자기가 아는 노인들 중에 아직 살아 있는 몇 분들을 하나씩 짚어 보았다. 아나나 다들까, 그 통계가 무영의 친부모와 장인, 장모에게도 들어맞았다. “목사님, 그 말이 꼭 맞네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이십 수년 전에 돌아가셔서 그런지 아직 살아 계시고, 우리 장인은 장모가 돌아가시자 두 해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무영이가 관심을 표하자 윤 목사는 그제야 자기 음식에 수저를 뒀다. 윤 목사는 음식을 한 숟가락 빨리 씹어 삼키고 나서 다시 말을 계속했다.

“돌아가신 부인에게 미안하지만, 남자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습니다. 허 선생님은 아직 너무 젊으시잖아요? 늘 이렇게 홀아비로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딸들도 곧 다 제 갈 길로 가버릴 텐데 내조자가 있어야지.”

“목사님, 전 아직 그런 걸 생각해볼 정신적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훗날 재혼하실 수도 있겠지요. 어떻게 마냥 이대로 혼자서만 살아가시렵니까?”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그렇게 외롭게 보이는가요? 신앙심만 있으면 예수를 친구 삼고 여생을 혼자 살아가는 것도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혹시 무슨 중신부탁이라도 받았습니까?”

“무슨 소리! 그런 부탁은 없었어요. 이 교회 양떼들의 영적인 삶을 돌보는 목회자로서 혼자 사는 허 선생님을 교회에서 볼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이 교회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저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요사이 허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몰라요. 목사님, 무엇인가요?”

“내가 꼭 허 선생님과 짝을 지어주고 싶은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 선생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가 봐요. 금년 초에 시카고로 이사 가신 오순회 집사님 아시죠?”

“네, 알고말고요.”

“오순회 집사는 의사였던 남편이 육년 전에 불의의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남편이 두둑이 남겨놓은 유산으로 오 집사는 아직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할 필요가 없었다. 그동안 중학교에 다니는 자식을 데리고 혼자 살다가, 지난 가을에 대학에 입학한 자식을 따라 형제들이 살고 있는 시카고로 이사를 가 버렸다.”

“지난주에 시카고에 가서 오 집사님을 방문하고 왔어요. 그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오던 중이라 용기를 내어 그분 앞에서 허 선생님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요사이 오 집사님 어떻게 지나시던가요?”

“시카고 생활이 즐거운 모양입니다. 자주 형제들을 만나고 또 대학에 들어간 아들 치다꺼리해주고 매일 한인 봉사기관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여기 있을 때보다 사는 게 훨씬 더 보람 있고 즐겁습니다.”

▲이메일: chonhae@hotmail.com (다음호에 계속)

〈13면에서 계속〉

다음 해에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전히 온두라스 치안 상황은 불안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근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변에 여러 곳에서 강도사건이 있었습니다. 연말을 맞아 특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절과 성탄절을 맞아 올 한해 동안의 사역을 정리합니다. 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온두라스와 저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에는 2013년 사역의 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Hold the rope. 기도의 줄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저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니까요!!!!

2012년 주요 사역 및 사역 내용 교회 사역

아자꾸알과 교회, 몽케카구아 교회, 산이시드로 세롬 교회, 프에블로비에호 교회(가정교회), 폴로몽카구아 교회, 몬테베르데지역교회, 교회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레스 : 몽케카구아 교회, 프에블로비에호 교회, 에스페란자 교회에서 올 한해 47명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 개척 사역: 10년전 처음으로 렌카 인디언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는 교회가 전무한 지역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자꾸알과, 몽케카구아, 셀롬지역, 프에블로비에호, 나랑호, 몬테베르데 지역에서 교회 개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몽케카구아교회(김상규 목사님과 권정숙 사모님, 뉴욕신학교교회 김명국 목사님, 상황중앙장로교회 권혁천 목사님 후원)와 셀롬교회(휴스턴중앙장로교회 이재호 목사님 후원)의 건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몽케카구아교회 헌당예배는 2013년 1월 13일에 드릴 예정입니다.

내년 (2013년)에는 새로운 교회 개척을 위하여 나랑호, 우니온, 산로렌조, 몬테베르데, 몬테베르데 우니온, 세보이타 지역을 선정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 사역

-La Escuela de la Semilla de Mostaza(겨자씨학교): 1)아자꾸알과 지역에 세워진 방과후 학교가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1일 19명이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2)몽케카구아 교회에도 학교를 시작하여 40여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두 학교에서는 렌카 인디언 마을의 미래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영성과 지성을 지닐 수 있도록 말씀과 영어, 음악, 컴퓨터, 미술 등 매일 3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4) 올 한해동안 테구시칼과, 산페드로솔라 및 코판루이나스 여행, 어린이날 공립학교 및 다른 지역학교에서 전도사역 등을 통하여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됨이 큰 결실이었습니다.

-산페드로솔라 Fuente de Luz 학교 사역: 올해 제 2 도시인 산페드로 솔라에 있는 Fuente de Luz 학교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한국 사랑의교회에서 파송받은 장용혁 선교사님께서 이스라엘로 선교지를 변경하면서 저에게 이양한 학교인데, 현재 300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세워진 지역은 도시빈민지역인데 갱단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이 학교를 통하여 실력있는 믿음의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사세미나 : 11월 25일 교사 세미나를 가져서 1) 사역에 대하여 2)사역의 원리 3)사역자들의 자세에 대하여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컴퓨터 및 영어 수업 : 새학기부터 컴퓨터 교실(장인되시는 최일식 목사님과 아틀란타 집사님의 후원으

로 컴퓨터 마련)과 영어교실(영어교사 후원자를 찾고 있음)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성경학교(아자꾸알파와 몬테베르데) 및 말씀 묵상 a. 아자꾸알과 성경학교: 2년 과정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8명의 학생들이 수료하였으며, 몽케카구아교회와 아자꾸알과 교회의 리더로 좋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b. 오지 지역 지도자를 위한 인텐시브 성경학교: 오지인 몬테 베르데 (Monte Verde)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 지도자들을 인텐시브성경학교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 말씀묵상: 마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매일 아침 묵상의 시간이 신약을 두번 마치고 지금은 구약성경을 시작하여, 민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부부세미나, 여성세미나, 남성세미나, 유스세미나, 학부모 간담회 등을 은혜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Community Development 사역 “염소의 젖은 넉녀하여 너와 네집의 음식이 되며”(잠 27:27)

농촌지역의 성도들을 위하여 양, 염소, 송아지를 분양하여 가족들의 영양 보충으로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시작하였는데, 잘 증식하여 여러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염소와 양, 그리고 돼지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종자의 젖염소 (상황중앙장로교회 이용덕 장로님 후원)를 수입하여 분양할 예정입니다.

장학금 사역

지역교회와 겨자씨학교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데 현재 성경학교 학생 두명(시카고두란노침례교회 은혜목장, 할렐루야 목장)과 중고등학교 아이들 8명 (시카고 박상현 장로님, 메릴랜드 락빌장로교회 안익재 집사님)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단기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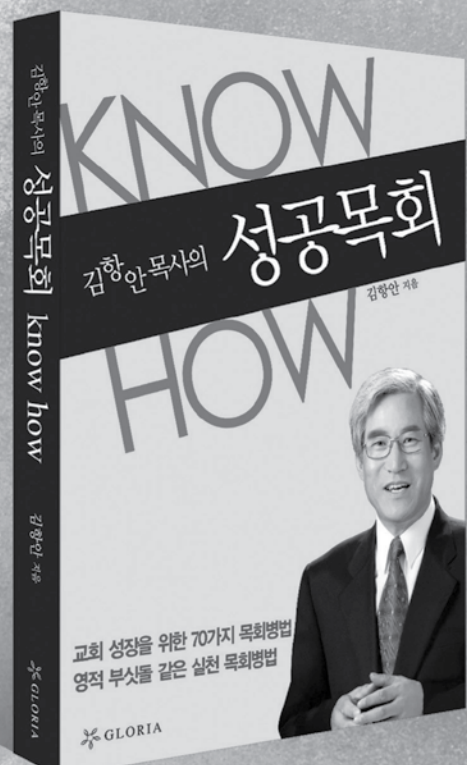
올해는 여러 팀들이 선교지를 방문하였네요. 워싱턴중앙장로교회 학생들, 아틀란타실로암장로교회, 필라 우리교회에서 단기선교로 섬겨주셨고, 가족단위로 중앙장로교회에서 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상황중앙장로교회 권혁천 목사님과 이용덕 장로님, 시카고 포도원장로교회 양현표 목사님께서 방문하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

1. “살으로 그리는 복음”을 위하여
2. 교회 성장을 위하여 : 아자꾸알과, 프에블로비에호, 세롬, 몽케카구아
3. 새로운 지역 교회 개척지 (나랑호, 우니온, 산로렌조, 몬테베르데 우니온, 세이비타)를 위하여
4. 인텐시브 성경학교(안토니오, 다리오, 아구스틴, 올빈)와 몬테베르데 성경학교 준비
5. 산페드로솔라 뿌엔테 데 루즈 학교 (재정 지원)와 아자꾸알과/ 몽케카구아 겨자씨학교를 통하여 실력있는 신앙인 양성을 위하여
6. Randy Seo 선교사와 Dr. John and Ana Tucher 선교사 가족의 기도 및 재정 후원을 위하여
7. 동역자들을 위하여 (Paz 목사, Blanca 사모, Antonio 목사, Ingrid 교장, Yadirra 선생, Brenda 선생, Andres 형제, Agustin 형제, Olvin 형제)
8. 선교사 가족을 위하여

장세균 선교사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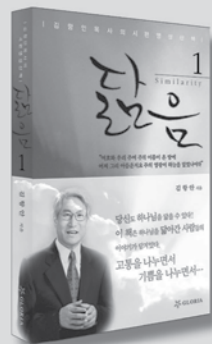
김항안 목사가 전하는 실천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성공 목회가 되게 하는 70가지의 목회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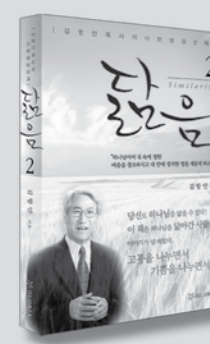
김항안 지음 384쪽 신국판 정가 12,000원

28년 동안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를 통해 한국교회에 소개된 영적 부식들과 같은 실천목회의 Know How와 Know Where가 담긴 목회방법!!!

김항안 목사가 시편 150편을 새롭게 조명한 기독교 영성 안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출판부분 우수도서 선정



김항안 지음 415면 신국판 정가 12,000원



김항안 지음 412면 신국판 정가 12,000원



김항안 지음 415면 신국판 정가 12,000원

시편 150편에 담긴 기독교영성의 맥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대비시켜 영성의 맥을 알게 해 주는 영성회복의 내비게이션!!!

김항안 목사가 새한국중앙교회에서 행한 일 년 365일 새벽기도 대표기도문



김항안 지음 390면 신국판 정가 12,000원



김항안 목사 철학 박사, 선교학 박사

목표 교육대학, 가톨릭대학, 중앙대학교 대학원, 장로회 신학대학원,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핀켄 대학, 베를린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했다. 강남 대학, 총회 신학, 서울 신학대 동대학원 강사, 아세아 신학대학원 교수, 한국교회정보센터 대표, 글로벌 선교의 대표, 새한국중앙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기독교 윤리의 원천, 「절기 예배의 이론과 실제, 「감동적인 고난주간을 위하여, 「복음적인 설교와 교회성장, 「목회자의 영적능력과 교회성장, 「목회자의 영적은사와 교회성장, 「대표기도핸드북, 「감사하는 영혼의 양식 환금기도, 「일만 번 주기도 하라, 「아이들 스스로 변화하게 만드는 크리스천 사랑교육법, 「달음, 「1997~2012 복음적인 예배와 설교를 위하여, 「새벽기도를 위한 365일 기도문, 및 다수의 저서가 있다.

기도는 자기의 무능을 한풀이하는 “성토대화”가 아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도움임을 옷 입는 과정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다.



#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25)



## 3. 예배중심의 교육-성인예배 (Worship-centered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오늘은 한인교회의 기독교교육이 지닌 성격들 중 하나인 "예배중심의 교육(Worship-centered Christian Education)" 중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 역할 및 방법들이 우리 한인교회 어른들과 자녀들의 교육사역의 현장에서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한인 어른예배에 이어 오늘은 우리 자녀들의 예배 안에서 예배의 교육적 역할들과 방법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녀들의 교회교육은 어른들보다 형식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그룹(small group) 성경공부 시간이 비교적 잘 확보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리고 일관성 있는" 직접적 가르침과 배움의 시간, 공간, 기회가 어른들보다 잘 제공되고 있지요. 매우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들만의 예배시간이 있어서 통전적인 교육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자녀들 예배에는 교육적인 부분들 또한 매우 잘 녹여져 진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기독교적 정체성 형성(Christian identity formation)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함께 드리는 찬양과 함께 듣는 말씀들이 매우 효과적인 교육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 설교 자체도

장을 위한 교육 부분에서 좀 더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역자들이 더 많은 고민과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추천할 방안은 정기적으로 우리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획해 신앙의 선배들이 어른들의 영성과 예배에서의 태도 등을 경험하고 분방해 하는 것입니다(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필요함입니다). 아이들만의 예배에서 채울 수 없는 "의식"으로서의 예배를 경험하는 것은 자녀들이 기독교인으로 정체성 확립뿐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위한 교화와 영적인 성숙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함께하는 예배에서의 언어문제를 조율하는 일과 그들이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도록 하는 일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워 주는 일과 한국적인 신앙적 전통을 전수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또한 교육과 예배를 통해 감당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함께하는 예배에서 살고 살아가며 교회교육 또한 대부분 영어로 이뤄지고, 어른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의 외양을 가지고 살아갈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거시적으로 고민한다면, 그들의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과 신앙적 전통들은 한인 교회들이 반드시 그 책임을 느끼고 감당해야 하는

## 어른예배의 '영적' 부분 배울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히 한국인 정체성 키워주고 한국 전통적 신앙전수 가르쳐야

"preaching"의 요소와 "teaching"의 요소를 균형있게 조화시켜왔으며, 찬양의 가사들을 통해서도 지식적 정서적 배움이 있도록 잘 기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적으로나 사역자들이 스스로 자녀들의 교회에서의 제반 활동을 "교육"이라는 틀거리로 잘 이해하며 섬겨온 까닭이며,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어른들과는 다른 언어로 교육과 예배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난 상황적 요소도 도움이 됐을 것이며,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적 인격적 교육에 관심을 쏟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우리 자녀들은 소위 classroom setting에서도 또한 worship setting에서도 교육의 기회를 어른들보다 더 균형있게 제공받았으며, 예배 자체를 통해서도 많은 교육의 효과들을 누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더욱 더 통전적인 교육을 위해 우리 사역자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 두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 자녀들의 예배는 어른 예배에서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배움의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들의 예배가 주로 영어로 진행돼 서구화된 경향이 다분해 "cool"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즉 한국 교회의 전통인 영성 충만한 기도회를 통한 배움이라든지, 성례에의 참여를 통한 배움의 부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영적인 성

부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큰 미국 사회와 세계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민족적,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로 또한 신앙 전통의 문제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를 대비해 그들이 건강하게 고민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들은 최소한 건전한 대안과 그들의 고민들에 대한 대안이 되어줄 좋은 자료들을 제공하는 "resource provider"가 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적인 신앙전통을 전수하는 일 또한 이미 많이 서구화 된 우리 자녀들에게 "강압적으로" 느껴져서는 곤란합니다.

이에 예배를 통한 교육으로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른들의 뜨거운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인종적 신앙적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때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돼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어른들의 성찬식에 참석했다면 이 거친 땅에서 영적으로 처져있다고 느낄 때,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장로님의 진지한 태도와 뜨거운 눈물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의 예배에 동참하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사역자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인지해 자녀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그 예배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락처: sinaichung@yahoo.com

#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 월 의인의 간구(눅1:5-25)

8-13절은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세례 요한의 수태 고지를 받은 내용입니다. 사가랴는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분향은 모든 백성들의 간구를 의미합니다. 밖에 있는 백성들도 이때 간구했으며 사가랴 역시 간구했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알린 것입니다. 사가랴는 지금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민족과 국가와 여러 성

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의인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메시아의 도래뿐 아니라 그 메시아의 선구자 역할을 할 아들까지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잠15:29) 우리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의로운 간구를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 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눅1:26-38)

30절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여'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러 왔을 때 '사가랴여'라고 부른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천사가 각 개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각자를 다 개인적으로 알고 계심을 뜻합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제사장 한 사람이나 시골처녀 한 사람도 다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인류라는 집단의 한 사

람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요.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지켜보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세밀하게 관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 수 성도간의 교제(눅1:39-66)

본문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마리아와 마리아를 영접하는 엘리사벳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성도간 교제의 모범을 배울 수 있습니다. (1)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신속하게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산지를 홀로 가는 것은 매우 수고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임태했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기쁨을 나누고자 그렇게 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께 은혜받은 일은 신속히 알려 기쁨을 나누고 또 다른 성도가 은혜받은 일은 신속히 가서 확인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2)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성령 안에서 교제했습니다. 마리아가 문안하니 엘리사벳도 복종의 요한도 성령충만을 받았습니까(41절).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교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 되고 신앙도 성장합니다. (3)엘리사벳은 마리아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마치 종이 주인을 맞는 자세로 받았습니다. 서로 주의 은혜를 나누고 성령 안에서 축복하며 겸손히 섬기는 성도의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 목 찬송의 제목(눅1:67-80)

67, 68절은 '사가랴의 찬가'로 불리는 찬송의 서두입니다. 사가랴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내용은 주 예수를 이 땅에 보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보통은 엘리사벳이 아들을 출생한 은혜, 그 아들이 메시아의 선구자가 되는 사실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자신의 가정에 베푸신 은혜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먼저

찬송했습니다. '속량'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사역을 가리킵니다. 사가랴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의 속죄사역과 은혜를 찬송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찬송제목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구주의 속죄 은혜를 찬송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금 사실과 계시(눅2:1-20)

15절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후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를 직접 눈으로 목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탄생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반면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이 다 입증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등은 고고학이나 과학으로 분명하게 밝힐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사실의 종교인 동시에 계시의 종교입니다. 만일 누가 이 중에 하나를 버리고 하나만 취한다면 기독교인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은 사실에 기초하면서도 또한 그것에 근거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계시를 통해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계시에 근거하여 믿음이 더욱더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 토 말씀 공부(눅2:21-52)

41-51절은 예수님 소년기 때의 일화입니다. 이스라엘 성인들은 매년 3차,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 가정이 매년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간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던 해는 예수님도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율법에 관해 토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심취해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심이 있

으셨기에 사단의 유혹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었고, 종교지도자들의 시험도 해박한 율법지식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엡6:11, 17).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위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함으로써 험하고 악한 세상 사단의 시험에 늘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를 아는가

에덴의 언어와 구약의 조명에 비취진

**생명나무에 대한 전혀 새로운 스토리!**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 통전적 내러티브와

고대 근동사를 캔버스로 하여 펼쳐지는 환상적인 생명나무 드라마!

이 책을 읽는 순간 에덴동산의 신비의 문이 활짝 열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행복한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줄

신앙의 새판짜기가 이뤄진다



503면 / 1,600원

소강석목사의 오랜 신학적 퇴적과 목회적 임상 실험을 통하여 일구어낸

생명나무 연구의 결정판!

혼돈과 공허의 블랙홀에 빠져 욕망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한국교회를 살려낼 생명과 구원의 대서사!

단 한 줄을 읽더라도 심장이 뛰게 되리라.

# 생명나무

소강석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선정 출판문화상 최우수상, '마틴 루터 킹 패러다임' 집행위원회가 수여하는 국제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 한국기독교선교대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및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정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베두인의 눈으로 본 시 23편 (베스위건) 234면 / 9,500원



꽃을 피우는 건 꿈꾸는 나비 (베스위건) 344면 / 13,000원



거룩한 전쟁 531면 / 18,000원



십자가를 체험하라 320면 / 12,000원

금란출판사 • 한국인터넷주소: 금란.금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gumran.co.kr • 서울 중로구 이화동 184-3 • TEL : 745-1007(4)



1. 오바마 대통령 재선 성공

(1397호 2면, 1399호 3면, 1400호 1면, 1401호 1면, 1405호 1면, 1407호 2면, 1408호 1면, 1409호 2면, 1410호 3면)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성공했다. 본지는 지난 8월 중순부터 미국 대선 소식을 꾸준히 전하며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또 미국 기독교계의 반응을 보도하며 오바마 재선 성공에 대한 기사도 다뤘다.

2012 미국 대통령 선거의 최종 스코어는 332-206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였다. 미국 대선에서 가장 늦게 개표 작업이 끝난 플로리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오바마 대통령이 득표율 50.0%를 기록했고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가 49.1%를 기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11월 6일 선거 결과를 바라보는 북음주의 기독교계의 마음은 착잡하다. 동성결혼을 공개 지지하고 결혼을 한 여자와 한 남자 간 결합이라고 정의한 결혼보호법을 폐기하겠다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승리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른바 7대 경향주로 꼽힌 콜로라도, 아이오와, 뉴햄프셔, 오하이오, 버지니아, 위스콘신, 플로리다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는 저력을 과시했다.

따라서 1980년대부터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소위 "신앙협수" 즉 기독교 보수, 북음주의자 유권자들의 투표가 이번 대선에서는 한마디로 참패를 당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북음주의자들의 연대와 일치 높았으며, 오바마 재선 후에 벌어질 본격적인 "문화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담담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서명운동

(1370호 11면, 1373호 11면)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서명운동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했다. LA지역 한인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 한인 단체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CRC)가 지난 1월 25일 공개한 공식 시 선거구 재조정안 초안에 따르면 한인 타운은 여전히 4개의 선거구로 분리돼 각 선거구에 편입돼 있다. 이는 한인 유권자들의 정치력이 분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가주교협, LA한인회,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 PAVA, 남가주 한인음식업

2012년 본지가 보도한

- 시간별 보도순서에 따라

10대 뉴스

연합회(K.A.F.R.A) 등 15개 한인단체들은 27일 남가주교협 회의실과 30일 LA한인회 대회의실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3만명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선거구는 10년마다 재조정되기에 올해 한인 타운을 포함하는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면 한인들은 타민족과 타 커뮤니티의 들러리로 전락하게 되며 한인들의 권익은 요원해지게 된다.

3. 빛바랜 남가주교계 등 친동성애 법안 SB48 저지운동

(1373호 9면, 1375호 11면, 1384호 11면, 1385호 11면, 1394호 9면)



Christian Coalition of California(한인 대표 사라김)과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변영의 목사) 등 남가주교계 등이 주도한 SB48 저지운동이 결국 주정부 요구 사항인 50만5천표를 모으지 못해 좌절되고 말았다. 지난해 통과된 친동성애교육법안인 SB48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시도한 PRE(Parental Rights in Education)법의 안과 Class Act 법안의 등이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어 캘리포니아 내 모든 공립학교에 친동성애 교육법안이 실시되고 말았다.

교협관계자에 의하면 그동안 모인 서명자는 총 55만여 명이었는데 이 중, 주소, 사인 및 서명지를 돌리는 사람이 서명하는 용지 가장 아래에 있는 Circulator의 서명란 미가입 등을 비롯해 서명용지 복사본 오류 등의 문제로 8만명이 무효표로 판명돼 주민발의안 상정에 실패하게 됐다고 밝혔다.

PRE와 CLASS ACT주민발의안 상정 실패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의 친동성애 교육을 지지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그 대안을 밝혔다.

4. 한인신학대 총기난사 7명 사망

(1379호 9면)

지난 4월 2일 오전 오를랜드에 위치한 오이코스대학 간호학과 강의실에서 총기 사건의 발생, 7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본 총기사건은 간호학수업과 영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던 중 발생한 것으로 간호학을 수강하던 한인 심씨(22세)와 김씨(23세)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 고원일 씨(43)는 오이코스대학 간호학 수업을 받았던 학생으로 이날 간호학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교실로 45구경 켈리버 권총을 들고 들어가 한 여성을 겨냥해서 쏜 뒤 다른 학생들에게도 무차별 난

사를 시작했으며 도주하면서도 총격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근처 쇼퍼센터에서 체포됐다.

오이코스 대학은 2004년 김종인 목사가 설립한 대학으로 이스트 오를랜드 에지워터 로드에서 위치해 있으며 신학, 음악, 간호학, 동양의학, 영어교육 학과가 있으며 200여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다.

5.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1381호 1면)



제 27회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 세미나가 지난 4월 17일 오후 6시 서울 금란교회 지하 리셉션장에서 개막돼 20일까지 계속됐다. 미국 내 15개 지역과 브라질,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프랑스, 그리스, 일본, 필리핀, 러시아 그리고 한국 현지에서 4백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발행인 장영준 목사는 "부활절 후 바쁜 일정에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특별히 금란교회준비위원회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세미나가 태동되기까지 많은 기도와 준비가 있었으며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세미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답례사를 했다.

6. 한인신학교 4곳 ATS 준회원 자격획득

(1390호 9면)



ATS(신학교협회,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는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총회를 갖고 미주지역 4개 한인신학교에 준회원 자격을 승인했다.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한 ATS 총회에서 신학교협회는 회원학교들의 표결을 거쳐 6월 20일부로 미주장신대(총장 이상명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송 박사),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김광신 박사), 조지아크리스천대학교(총장 김장환 박사) 등 4개 한인신학교의 준회원(Associate Member) 자격을 승인했다.

ATS는 ABHE와 TRACS 등 종교교육 관련 인가기관 가운데 하나로 프린스턴신학교, 풀러신학교, 아주사신학교, 그리고 탈

북신학교 등과 같이 학부과정 이후 신학교육 관련 다양한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인준하는 기관이다. 현재 ATS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주에 산재한 260개 이상의 회원 학교를 보유하고 있다.

7. 동성애 홍역 올해도 계속...

(1392호 1면, 14면, 1393호 9면)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 22회 미국장로교(PCUSA) 총회에서 동성애 문제가 다시 한 번 쟁점에 올랐다. 바로 지난해 총회 때 상정됐다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졌던 '결혼 정의 변경'이 그것이다. 이 안건은 결혼의 정의를 '남녀 간의 결합'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미국장로교 총회에서 '결혼 정의 변경'안이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지난 총회 때 1997년 이후 4번째로 시도됐던 '결혼과 독신 조건'의 삭제가 실제 인준되면서 더 주목받고 있다. 당시 통과된 안건은 미국장로교 헌법 G-6.0106b 조항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의 언약을 맺어 정절하게 살거나 독신으로 순결하게 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후보자는 필요한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모시는 자여야 한다. 치리기관(당회 혹은 노회)이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한다'는 문구로 대체하자는 제안이었으며, 표결에 부쳐져 찬성 373, 반대 323, 기권 4표로 통과됐다.

8.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

(1394호 1면, 1394호 9면, 16면, 1395호 9면, 16면)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 사무총장 고석희 목사)가 '격동하는 지구촌, 긴박한 땅끝 선교!'라는 주제로 7월 23일부터 4박5일 동안 시카고 휘튼대학 빌리 그래함센터에서 5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막됐다. 4천여 명의 주의 일꾼들이 모여 땅끝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고 그 내용이 이번 대회에 채택된 휘튼 선언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선언문 공약에는 회복해야 할 성경적 기

초와 사도적 원리 7가지를 발표했는데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선교 △약한 자를 사랑하는 선교 △고난당한 자를 위한 선교 △정체 없는 나그네를 위한 선교 △죄인을 위한 선교 △종말론적인 선교 △순교적 선교. 참석자들은 7가지 사도적인 선교원리로 돌아설 것을 서약했다.

9. 신천지, 남가주에서 대형집회

(1394호 11면)



한국 기독교계가 대표적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대표 이만희) 집회가 7월 21일 오전 10시30분 구 수정교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캘리포니아의 한인교회인 오렌지카운티 교협과 목사회, 남가주 교협과 목사회를 비롯한 10여개 단체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을 선포하고 당일 오전 10시 집회장 입구에 모여 반대시위를 벌였다.

당시 집회장 입구는 건장한 체격의 주차 요원(한인)들이 일반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초청을 받은 이들과의 입장을 허락했고 특별히 한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했다.

이날 집회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개최된 것이나 상당수의 한인들도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 순서에도 한인들을 위한 한국어로 준비된 섹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뉴욕에서 집회 개최 사실을 접하고도 좀 더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으며, 모인 시위대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통성기도한 후 자리를 뒀다.

10. 이성은 자매 안락사 위기

(1404호 10면, 1405호 3면, 1412호 10면)



뉴욕 순복음 안디옥교회 담임 이만희 목사의 딸 이성은 자매(28) 소극적 안락사 위기가 뉴욕한인교회를 넘어 미 주류사회 언론까지 보도했다.

뉴욕교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10월 1일 롱아일랜드 노스쇼어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 후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자 노스쇼어 병원 측은 10월 6일 가족들에게 이송 허락을 전했다. 가족들은 "완치가 가능하고 호흡기와 환자 식사 공급용 튜브가 달려있는 휠체어 제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옮길 곳을 찾고 있다"고 밝혔으며 호흡기 제거에 따른 소극적 안락사 위기에서는 벗어났다. 그러나 타 병원으로 옮기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라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퇴원해 자택에서 요양 중이다. (정리 : 박준호기자)

Advertisement for the book '성령으로 혁신하는 리더십' (Revolutionary Leadership by the Holy Spirit) by Pastor Kim Yun-su. The cover features the title and a quote: "참된 리더는 재능과 경험이 아닌 성령으로 승부한다." (A true leader wins not by talent and experience, but by the Holy Spirit.)

Advertisement for the book '성령으로 혁신하는 리더십' (Revolutionary Leadership by the Holy Spirit) by Pastor Kim Yun-su. The text includes: "[교회를 혁신하는 리더십], [영혼을 혁신하는 목회 리더십]에 이은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정인수 목사의 세번째 책 리더십의 결정판!" (The final book in the series by Pastor Kim Yun-su of the Atlanta United Presbytery, following 'Revolutionary Leadership by the Holy Spirit' and 'Revolutionary Pastoral Leadership by the Holy Spirit').